

教育學碩士 學位論文

日·韓 慣用語句에 關한 一考察

- 특히, 身體語彙 慣用語句의 情緒表現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張 相 彦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8月

釜慶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姜 英 眞

姜英眞의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04年 6月

主 審 崔 建 植 (印)

委 員 朴 榮 淑 (印)

委 員 張 相 彦 (印)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자료.....	2
3. 연구방법.....	2
II. 본론	3
1. 관용어구의 개념.....	3
2. 신체어휘 관용어구.....	3
2.1. 신체어휘 관용어구의 개념.....	3
2.2. 신체어휘의 범위.....	5
3. 신체어휘 관용어구의 분류방법.....	6
4. 일 · 한 신체어휘 관용어구의 정서표현별 비교.....	13
4.1. 頭部.....	13
4.1.1. 目/눈.....	13
4.1.2. 顔/얼굴(체면 · 낯).....	14
4.1.3. 鼻/코.....	16
4.1.4. 頭/머리.....	17
4.1.5. 耳/귀.....	18
4.1.6. 口/입.....	19
4.1.7. 首/고개(목 · 모가지).....	20
4.1.8. 眉(眉毛) /눈썹.....	21
4.1.9. 齒/이.....	22
4.1.10. 顎/턱.....	23
4.2. 胴體部.....	24
4.2.1. 胸/가슴.....	24
4.2.2. 腹/배.....	25
4.2.3. 肝/간 · 담.....	26
4.2.4. 腰/허리.....	27
4.2.5. 臍/배꼽.....	28
4.2.6. 腸/장(애 · 뱃 · 애간장).....	29

4.3. 四肢部.....	30
4.3.1. 肩/어깨.....	30
4.3.2. 足/발.....	31
4.3.3. 手/손.....	32
4.3.4. 尻/엉덩이.....	33
4.4. 全身部.....	34
4.4.1. 身/몸.....	34
4.4.2. 血/피.....	35
4.4.3. 骨/뼈.....	36
5. 신체어휘 관용어구의 일·한 비교.....	37
5.1. 신체어휘별 비교.....	37
5.2. 정서표현별 비교.....	41
Ⅲ. 결론.....	44
Ⅳ. 참고문헌.....	46
Ⅴ. 별표.....	48

- 표 목 차 -

〈表1〉 身體語彙別 情緒表現 慣用語句 用例數.....	11
〈表2〉 情緒別 身體語彙 慣用語句 用例數.....	12
〈表3〉 「目/눈」의 用例數 및 比率.....	13
〈表4〉 「顔/얼굴」의 用例數 및 比率.....	14
〈表5〉 「鼻/코」의 用例數 및 比率.....	16
〈表6〉 「頭/머리」의 用例數 및 比率.....	17
〈表7〉 「耳/귀」의 用例數 및 比率.....	18
〈表8〉 「口/입」의 用例數 및 比率.....	19
〈表9〉 「首/고개·목」의 用例數 및 比率.....	20
〈表10〉 「眉/눈썹」의 用例數 및 比率.....	21
〈表11〉 「齒/이」의 用例數 및 比率.....	22
〈表12〉 「顎/턱」의 用例數 및 比率.....	23
〈表13〉 「胸/가슴」의 用例數 및 比率.....	24
〈表14〉 「腹/배」의 用例數 및 比率.....	25
〈表15〉 「肝/간·담」의 用例數 및 比率.....	26
〈表16〉 「腰/허리」의 用例數 및 比率.....	27
〈表17〉 「臍/배꼽」의 用例數 및 比率.....	28
〈表18〉 「腸/애·뱃」의 用例數 및 比率.....	29
〈表19〉 「肩/어깨」의 用例數 및 比率.....	30
〈表20〉 「足/발」의 用例數 및 比率.....	31
〈表21〉 「手/손」의 用例數 및 比率.....	32
〈表22〉 「尻/엉덩이」의 用例數 및 比率.....	33
〈表23〉 「身/몸」의 用例數 및 比率.....	34
〈表24〉 「血/피」의 用例數 및 比率.....	35
〈表25〉 「骨/뼈」의 用例數 및 比率.....	36
〈表26〉 日本語 身體語彙 慣用語句와 情緒表現 統計表.....	37
〈表27〉 韓國語 身體語彙 慣用語句와 情緒表現 統計表.....	39
〈表28〉 情緒表現 分類에 의한 근원 身體名表.....	41

-별 표 목 차-

〈별표1〉 目/눈.....	48
〈별표2〉 顔/얼굴(체면·낯).....	51
〈별표3〉 鼻/코.....	52
〈별표4〉 頭/머리.....	54
〈별표5〉 耳/귀.....	55
〈별표6〉 口/입.....	56
〈별표7〉 首/고개·목.....	57
〈별표8〉 眉/눈썹.....	57
〈별표9〉 齒/이.....	58
〈별표10〉 顎/턱.....	59
〈별표11〉 胸/가슴.....	60
〈별표12〉 腹/배.....	61
〈별표13〉 肝/간·담.....	62
〈별표14〉 腰/허리.....	63
〈별표15〉 臍/배꼽.....	64
〈별표16〉 腸/애·뱃.....	65
〈별표17〉 肩/어깨.....	66
〈별표18〉 足/발.....	66
〈별표19〉 手/손.....	67
〈별표20〉 尻/엉덩이.....	68
〈별표21〉 身/몸.....	69
〈별표22〉 血/피.....	70
〈별표23〉 骨/뼈.....	71

1.서론

1.연구목적

우리가 日本語를 外國語로서 공부하면서 문법적인 규칙이나 어휘자체의 意味와 다른 意味의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腹を立てる」의 어휘 낱말의 의미를 조합하면 「배를 세우다」이지만, 실제로는 「화를 내다」라는 뜻이다 이처럼 어휘적 의미만으로 그 뜻이 밝혀지지 않는 독특한 言語形式을 慣用語句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慣用語句는 그 나라의 일상생활이나 사고방식, 역사, 문화, 풍습, 자연환경 등의 바탕 위에서 생겨나 일상생활에서 慣用的으로 쓰여지는 독특한 表現으로서 自國人에게 있어서는 친숙한 표현일지라도 외국인에게 있어서는 쉽게 이해되기 어려워 오류를 범하기 쉬운 표현중의 하나이다.

宮地裕(1982)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慣用語句란 「두개 이상의 단어의 결합체로서 그 結合이 비교적 단단하고 전체가 고정된 意味를 나타내는 것」으로 「一般連語句」보다도 결합도가 높은 것이지만 「格言・俗談」과 달라서 역사적, 사회적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다. 慣用語句의 소재가 되는 것은 日常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주변에서부터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인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身體語彙에 관한 慣用語句가 양적인 면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 인간에 있어서 身體는 生理的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크지만, 그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比喩的, 象徵的인 의미로 使用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和田節가 말한 것처럼 「身體語彙에 의한 表現의 대부분은 단지 感覺, 感性的의 言語가 아니라 그 背景에 人間の 숨결이 있고 생활이 있으며, 따라서 그 反應内容에는 말하는 사람의 내적세계가 반영되어 있다」²⁾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外國語로서 日本語를 배우는 學習者에게 있어서 慣用語句의 習得은 日本語의 올바른 理解와 자연스런 日本語를 구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本 研究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日・韓 兩國語에 있어서의 慣用語句를 比較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1)柳椿姫(2000)는 語彙的 特性에 있어서 日本語 慣用語의 頻度順은 「기타→身體→事物→情神→植物→動物」順 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林八龍(1988)은 두개의 專門的인 辭典을 조사하였는데 身體語彙慣用語가 平均해서 전체의 약 4分の 1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2)和田節(1969)「からだのことは考」『日本語教育』、9月号、思想の科学社

2.자료

考察에 있어서 身體語彙 관련 慣用語句의 日・韓 兩國語 資料는 다음과 같다.

【韓國語】

- ・이희승(1994) 『국어대사전』 民衆書林
- ・박영준・최경봉 編著(1997) 『관용어 사전』 태학사
- ・국어국문학회(2000) 『국어대사전』 民衆書館

【日本語】

- ・白石大二(1987) 『国語慣用語大辞典』 東京堂
- ・日本人辞典刊行会(1990) 『日本国語大辞典』 小学館
- ・金學憲(1996) 『日本語 慣用語 辞典』 民衆書林
- ・安田吉實・孫洛範 編著(1996) 『엣센스 日韓辭典』 民衆書林

3.연구방법

본 研究에서는 日・韓 慣用語句 중에서도 특히 身體語彙에 關聯된 情緒³⁾表現과의 關係를 比較하여 考察하고자 하며 研究方法은 다음과 같다.

- (1) 관용어구의 개념
- (2) 신체어휘 관용어구
- (3) 신체어휘 관용어구의 분류방법
- (4) 일・한 신체어휘 관용어구의 정서표현별 비교

(日・韓 慣用語句의 情緒表現과 관련하여 對照할 身體語彙는 林八龍의 分類를 따르기로 하며 자세한내용은 3.身體語彙 慣用語句의 分類方法에서 記述하고자 한다.)

이상 上記와 같은 順序로 日・韓 兩國語의 身體語彙와 相關된 情緒表現 양상을 比較, 考察해 봄으로써 國內의 日本語 학습자들이 外國人이지만, 가능한 한 日本人의 情緒에 가깝게 意思疏通을 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3)이희승(1994) 『國語大辭典』 民衆書林

①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생각할 때 일어나는 갖가지 감정, 또는 그런 감정을 유발하는 주위의 분위기나 기분

②희노애락과 같이 본능적, 충동적으로 표출되기 쉬운 감정.

II. 본론

1. 관용어구의 개념

慣用語句는 한낱 한시에 生成된 것은 아니다. 文문화가 발달하고 知識의 보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까지의 語彙로서는 不足함을 느끼게 되어 새로운 表現方式을 찾게 됨으로써 生成되는 것인데, 처음에는 임시어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차츰 社會적으로 넓게 使用됨으로서 口語化하고 文語化함으로써 한 개의 慣用語句로서의 主體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習慣적으로 使用되고 있는 말(慣れ用いる語句)이란 意味로 慣用語句라는 用語가 생겨났다. 韓國語에서 慣用語句란 用語는 「慣用語」 「慣用語法」 「慣用文法」 「이디엄」 「익은말」 「熟語」 「熟語表現」 등으로 慣用語句에 대한 用語나 解釋은 상당히 多樣하며, 日本語에서도 「慣用句」 「慣用語」 「idiom」 「熟語」 등 一定하지 않은 것 같다.

대체로 日·韓 兩國語에 나타난 定義를 綜合적으로 考察해 보면 慣用語句란 다른 言語와는 相對的인 特色을 갖는 言語의 한 體系로서, 構造上 둘 以上の 單語가 必然적으로 結合해서 그 全體가 固定된 意味와 독특한 뜻을 나타내는 特殊한 句이다. 그러나 慣用語句의 名稱이나 概念에 대한 定義가 아직 완전히 體系化되었다고는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本稿에서는 慣用語句라는 용어로 통일하기로 한다.

2. 신체어휘 관용어구

2.1. 신체어휘 관용어구의 개념

身體語彙라는 것은, 日常生活에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수많은 語彙중에서, 身體와 關聯을 갖고 있는 語彙類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本來 生理的機能을 담당하는 身體部位를 지시하는 이와 같은 言語는, 그 實質的意味를 잃어버리고, 比喩적으로 새로운 概念을 獲得하고, 人間의 心理狀態나 經驗을 보다 적절하게 表現하고 있다.

이에 관해 星野命(1975)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身体語彙による表現とは、人間の身体に関する語彙のうち、直接身体・その部位を指示す

る名称(身体用語)の名称を一部または全部借用しながら、身体の状態・活動を直接指示するというよりは、むしろ別の状態や活動を暗示し描写する表現のことである。。。中略。。。身体語彙による表現の大部分は、身体、またはその一部位を直接とりあげながら、その形態的・機能的状態を具体的に描写するに止まらず、それが因果的に引き起こす事柄を間接に暗示しているところに特徴がある4)

이와 같이 身體語彙를 사용하고 있는 表現은, 概念的인 意味보다는 內包的인 意味로 새로운 概念을 創出해서 人間の 生活에 폭넓게 퍼져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身體語彙 慣用語句가 比喩的, 含蓄的 表現이라고 해도 그 比喩性의 程度는 반드시 一定한 것이 아니며, 比喩性에 있어서도 文化와 歴史的 背景의 影響을 받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5)

특히, 日本語의 心理 狀態에 관한 慣用語句는 大部分의 경우 外國人에게 있어서 理解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怒る」라는 感情을, 日本人은 「腹が立つ」라고 表現한다. 보통 「怒る」는 눈이나 얼굴, 머리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社會에서 자란 外國人은 화내는 것과 「腹」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疑問을 품게 되고6) 또 푸른 눈을 가진 外國人에게 「目の黒いうち」라고 말하기 어렵다7)

横山辰二(1975)는 이러한 精神的 意味에 身體語彙 慣用語句가 많이 사용되는 점을 日本語에 있어서의 慣用語句의 特徴이라고 하였다. 日本人 學者8)의 慣用語句 分類를 보면 「身体部分名を用いたもの」라고 항목을 세워 분류할 정도로 身體語彙를 이용한 語句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身體語彙 慣用語句가 양적인 면에서 身體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에 대해 몇몇 학자들이 조사한 내용을 참고로 살펴보고자 한다.

森田良行은 수집한 慣用語句의 例중에서 身體와 關聯된 것이 全體의 23.4%를 차지한다고 하였고, 林八龍은 두개의 專門的인 辭典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倉持保男他編는 「日常生活에서 使用 頻度數가 높다고 생각되는 慣用語 約 3,500項目」중에서 身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約 785例로 全體의 22.4%를 차지하고 있고, 宮地裕의 「常用慣用語句一覽」은 總數 約 1,280例 중에서 身體 語彙에 의해 成立한 것은 約 410例로 全體의 約 3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以上과 같이 慣用語句 中에는 특히 語彙的인 特徵으로서 身體語彙에 의한 것이

4)星野命(1976)『身体語彙による表現』大修館書店

5)金桂連(1991)「日・韓國国語における胴体部の身体語彙慣用語の対照考察」韓國外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6)宮地裕(1982)『慣用語の意味と用法』明治書院

7)中村明(1985)「慣用語と比喩表現」『日本語学Vol.4-1』明治書院

8)横山辰二(1975) 229—257면 / 宮地裕(1982)247—248면

相當히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고, 身體語彙는 단순한 生理的 作用과 機能으로서의 表現 領域에 머무르지 않고, 人間の 內的 心理와 사물의 把握 方法을 多樣하게 비추어 낸다는데에 큰 意義가 있는 것 같다.

2.2. 신체어휘의 범위

신체어휘의 범위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즉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보다는 훨씬 더 폭 넓게 해석되고 있다. 신체어휘 범위 설정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로는,

1) 星野命(1976)⁹⁾

身體와 그 部位를 지시하는 것 이외에도, 「身體部位では, それから派生した力・熱・痛み・血・涙・汗・へど・息(呼吸)や, さらには「氣」を用いた表現の一部なども身體語彙による表現に含めて差しつかえないであろう。」라고 신체로 인해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작용 내지는 감각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2) 和田節(1969)¹⁰⁾

직접 눈에 보이는 部位(髪・頭・顔・目・齒・尻・背・膝・肉・骨・筋・脈・....)와 身體에서 나온 것(涙・汗・唾・屁・糞・尿・いき)을 신체어휘로 간주하고 있다.

3) 林八龍(1988)¹¹⁾

신체어휘의 범위를 좀더 넓게 생각해 그것들을 크게 「신체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신체 그것은 아니지만 신체로부터 기인하는 모든 현상이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신체어휘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류 고찰하기 위해서 「신체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인 「一次的인것」중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頭部(頭・顔・髪・つむじ・額・眉・目・顎・ひげ・首....), 胴體部(胸・心臓・肺・胃・腸・腰・背・....), 四肢部(肩・腕・肘・手・指・爪・掌・尻・足・....)로 나누고, 「전체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全身部(身・血・骨)로 해서, 전부 네 가지 부위로 나누고 있다.

9) 星野命(1976) 『身體語による表現』 大修館書店

10) 和田節(1969) 「からだことば考」 『日本語教育』, 9月号, 思想の科学社

11) 林八龍(1988) 「日・韓身體語彙慣用句の比較対照のための基礎研究」 『韓國外國語大學校 論文集』 第21集

5)石野博司(1989)¹²⁾

身體内外(髪・顔・手・足・肉・骨・面・皮・...)는 물론이고, 넓게 해석해서, 「血・涙・汗・つば・息・あばた・魂・意・情け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며, 「魂・意・情け」와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것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身體語彙라는 것은 학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정리해 보면, 눈에 직접 보이는 부위에 한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 또한 신체부위에서 파생되는 분비물과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것들도 포함하는 廣義의 어휘라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廣義의 의미의 모든 신체부위 중에서 신체부위에서 파생되는 추상적, 정신적인 것들은 다음 기회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林八龍의 분류방법을 따라 아래와 같이 범위를 선정하여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身體語彙 慣用語句의 考察 순서》

①頭 部 : 目(86)/눈, 顔(35)/얼굴, 鼻(28)/코, 頭(17)/머리, 耳(16)/귀, 口(13)/입, 首(11)/목(고개), 肩(9)/눈썹, 齒(7)/이, 顎(6)/턱

②胴体部 : 胸(48)/가슴, 腹(17)/배, 肝(11)/간, 腰(7)/허리, 臍(6)/배꼽, 腸(5)/애(뱃)

③四肢部 : 肩(19)/어깨, 足(10)/발, 手(8)/손, 尻(5)/엉덩이,

④全身部 : 身(19)/몸, 血(18)/피, 骨(7)/뼈

(日本語 身體語彙뒤의 괄호안의 숫자는 身體語彙와 관련된 慣用語句의 情緒表現의 用例數를 나타냄)

上記의 順序로 身體語彙 慣用語句의 情緒別 樣相을 살펴볼 것이며 각 情緒의 意味別 分類는 다음과 같은 順序로 考察하고자 한다.(이하 身體語彙 慣用語句를 慣用語句로 생략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3. 신체어휘 관용어구의 분류방법

본 研究에서는 身體語彙를 사용한 慣用語句가 나타내는 比喻的 意味를 情緒別

12)石野博司(1989)「身体に関する慣用表現」『日本語教育』 33号, 明治書院

로 分類하여 兩國語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比較・考察하기로 한다.

情慾란 비교적 약하고 장시간 계속되는 정취(情趣)와 구분된다. 정서는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된다는 점에서 정동(情動)이라고도 한다. 희노애락(喜怒哀樂)・애증(愛憎)・공포・쾌고(快苦)등이 정서이며 의식적으로는 강한 감정이 중심이 되며, 신체적으로는 내장적(內臟的)생활기능의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¹³⁾

우리가 恐怖나 憤怒와 같은 강한 情慾를 경험할 때는 심장 박동과 呼吸, 목과 입의 乾燥, 근육 긴장의 증가, 발한, 사지의 떨림, 위장에서의 탈진한 느낌 등의 생리적, 身體的 반응이 수반된다. 情慾理論에서는 우리의 情慾 경험은 生理的, 身體的 반응에 대한 情報과 情慾 유발 사태에 대한 情報의 통합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홍대식은 「情慾理論에 의하면 情慾 經驗시 수반되는 生理的, 身體的 반응은 情慾적 경험의 일부를 構成한다」¹⁴⁾고 했다 그런데 情慾적 경험을 나타내는 慣用語句들은 다음에서 보듯이, 대부분 情慾 發生에 수반되는 生理的 반응이나, 身體의 변화를 나타내는 表現이다.¹⁵⁾

《韓國語》

가슴이 뜨겁하다, 가슴 설레다, 가슴이 섬뜩하다, 가슴이 뻐뻐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간담이 서늘하다, 낮이 간지럽다, 낮이 뜨겁다, 목이 베이다, 등골이 오싹하다, 오름이 저리다, 코마루가 쟁하다, 코허리가 시다, 코허리가 저릿해 오다

이러한 情慾表現 慣用語句는 그것이 지니는 內容이, 단어가 지니는 意味의 차원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情慾表現 慣用語句의 내용은 언어 형식에 직접적으로 對應되지 못하고 구성 단어의 의미의 도움으로 산출된다. 예를들어, 격분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치가 떨리다’라는 표현을 使用한다고 하여서 ‘치가 떨리다’가 단순히 ‘분하다’의 의미 資質을 지닌 것은 아니다 ‘치가 떨리다’는 구성 단어가 지닌 의미의 解釋을 기초하여 형성된 ‘치가 떨릴 정도로 분하다’라는 擴大 해석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慣用語句는 사용 話者는 물론 聽者에 의해 話者의 전달 의도 내용에 상응하는 解釋을 산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慣用語句는 단순한 語彙的인 표현이 지니지 못하는 表現的인 效果를 지닌다¹⁶⁾. 情慾表現 慣用語句가 지니는 表現적인 효과는 情報性이 커서 含蓄美가 있으며, 事實性과 生動感을 지닌 구상적 표현으로서 본인의 感情을 전달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뛰어난 표현이라는 생각이다.

13)이희승(1994) 『國語大辭典』民衆書林

14)홍대식(1990), 『심리학 개론』(역:E.R Hilgard et.al., Introduction to Psychology),

養英閣

15)장세경・장경희(1994) 「국어 관용구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집』 한양대한국학연구소

16)장세경・장경희(1994) 「국어 관용구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집』 한양대한국학연구소

이러한 뜻에서 본 연구에서는 日·韓 양국의 身體語彙 慣用語句가 나타내는 비유적 의미를 情緒別로 분류하여 比較·考察해 보고자 한다.

김유진¹⁷⁾에서는 기본 情緒들을 기쁨, 관심(흥분), 놀람, 슬픔, 분노, 혐오, 멸시, 두려움, 수치, 죄책감으로 구분하고 있고, 최정훈¹⁸⁾에서는 일차적 情緒의 영역을 분노, 공포, 슬픔, 기쁨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情緒의 類型化는 理論에 따라 다르나 本 研究에서는 김정택¹⁹⁾의 分類를 따르기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情緒》

《기본 정서나 일차적 정서》	기쁨, 슬픔, 두려움, 놀람, 분노, 증오, 부끄러움, 피로움, 흥미
《부차적 또는 이차적 정서》	존경, 경멸, 긴장, 당황, 질투, 실망, 무시, 미움

本 研究에서 다룰 情緒別 細部 內用²⁰⁾은 다음과 같다.

《기본 정서나 일차적 정서》

기쁨

의사소통과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적극적인 情緒상태이며, 개인의 욕구가 정상적으로 充足되었다는 증거이다. 또한, 의심스럽거나 불확실했던 실제적 필요가 충족될 가능성이 엿보이는데서 발생하는 情緒이다. 궁극적, 적극적인 情緒이며, 情緒의 강도에 따라 평온함, 만족감, 우스움, 의기양양, 황홀감, 편안함, 흥겨움, 감동, 사랑을 포함한다.

슬픔

어떤 원했던 사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느끼는 情緒이다. 情緒의 강도에 따라 걱정과 슬픔 등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슬픔의 단계를 넘어서 원한을 나타내는 慣用語句나 걱정보다 약한 情緒인 조바심, 안타까움등도 포함한다.

두려움

한 개인의 안녕을 위협할 가능성이 그에게 미칠 수 있는 실제적 또는 상상적 위협에 대한 정보에 의해 그의 심중에서 유발되는 소극적 情緒 상태이다.

17)김유진(2002) 『최신심리학』 시그마프레스

18)최정훈(1993) 『인간행동의 이해』 법문사

19)김정택(1993) 『인간행동의심리학』 (역:A.V.Petrovsky, et. al.,Psychology1983)사상사

20)김정택(1993) 『인간행동의 심리학』 (역:A.V.Petrovsky,et.al.,Psychology1983)사상사

놀람

일정한 積極的, 消極的인 효과가 없이, 새로운 상황의 급작스런 대두에 대한 情緒적 반응이다. 놀람은 이전의 모든 情緒를 억제하고, 개인의 주의를 유도하여 흥미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상에 그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어이없음, 충격, 놀람 등이 있다.

분노

극히 중요한 欲求의 충족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 갑자기 출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극적 情緒 상태이며, 격정 형태를 띠는 것이 보통이다. 괴로움과는 대조적으로 활력성 효과가 있어서, 생명력을 고조시킨다. 그러나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이 情緒의 발생과 상태에 관한 慣用語句는 情緒의 정도에 따라 화, 격분,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인접한 情緒에 싫음, 구찮음 등이 있다.

증오

증오는 개인의 이념적, 윤리적, 미학적 원칙 및 태도와 배치되는 대상, 인물 상황 등과 접촉(물리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등)함으로써 발생하는 情緒인데, 개인 간 관계에서 증오가 분노와 결합되면,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격은 분노에 의해 자극되고, 증오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제거해 버리고 싶다는 소망에 의해 촉발된다. 이보다 정도가 악한 불쾌, 언짢음, 아니꼬움 등에 관한 慣用語句를 볼 수 있다.

부끄러움

한 개인의 그의 의도, 행위, 외모와 주위 사람들의 규범, 도덕적 요구조건 간의 불일치를 자각하는에서 발생하는 소극적인 情緒 상태이다. 자신의 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의해 발생하는 情緒로써, 죄의식 등도 포함한다.

괴로움

개인의 생존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소망을 좌절시킬 것이 확실한(또는 확실해 보이는)정보를 수령하는데 따른 소극적 情緒 상태이다. 이것은 무력성 효과를 가져오는 情緒的스트레스 형태를 띠는 것이 보통이다.

흥미

공부, 지식의 획득, 습관과 기량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情緒 상태이다. 관심, 의욕, 호감등을 볼 수 있으며, 관심, 흥미가 지나친 욕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부차적 또는 이차적 情緒》

이차적 또는 부차적 情緒로 분류되는 긴장, 당황, 질투, 경멸, 존경, 실망, 무시, 미움등에 대한 慣用語句를 볼 수 있다.

부차적 또는 이차적 情緒는 ‘기타’로 묶어 나타내기로 하며, 본 研究의 身體語彙 慣用語句의 分類方法은 다음과 같다.

I 유형 : 日・韓 慣用語句의 情緒表現의 意味가 同一하거나 비슷한 表現

(兩國語의 表現형태²¹⁾와 意味가 같거나, 表現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意味가 같은 경우를 모두포함)

II 유형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III 유형 :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한편, 身體語彙를 이루는 각 部位는 慣用的인 表現중에서 細部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鼻」에 대해 「鼻ばしら(鼻っぱしら)・鼻げ・鼻さき」등이 있고 「目」에 대해 「目がしら・目じり・目くじら・ひとみ・」등이 있다. 이 같은 예도 慣用的인 表現중에서 各各 多樣하게 생겨나 있고, 獨特한 表現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²²⁾本 研究에서는 調査 對象에 넣어 생각하였다.

21) 日・韓 兩國의 관용어구를 구성하는 어휘가 각각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

22) 林八龍(1988)

本 研究에서 調査한 情緒表現에 利用되는 身體語彙 慣用語句의 身體語彙別 用例數 및 比率은 다음과 같다.

〈表1〉 身體語彙別 情緒表現 慣用語句 用例數

日 本 語				韓 國 語		
身體語彙		數	比率(%)	身體語彙	數	比率(%)
頭 部	目	86	21.0	눈	74	19.9
	顔	35	8.6	얼굴	36	9.7
	鼻	28	6.9	코	18	4.9
	頭	17	4.2	머리	23	6.2
	耳	16	3.9	귀	15	4.0
	口	13	3.2	입	19	5.1
	首	11	2.7	고개·목	15	4.0
	眉	9	2.2	눈썹	0	0.0
	齒	7	1.7	이	4	1.0
	顎	6	1.5	턱	0	0.0
	小計	228	55.9		204	54.8
胴體部	胸	48	11.8	가슴	51	13.7
	腹	17	4.2	배	5	1.3
	肝	11	2.7	간	12	3.2
	腰	7	1.7	허리	6	1.6
	臍	6	1.5	배꼽	4	1.1
	腸	5	1.2	애·뱃	16	4.3
	小計	94	23.1		94	25.2
四肢部	肩	19	4.6	어깨	13	3.5
	足	10	2.4	발	14	3.8
	手	8	2.0	손	7	1.9
	尻	5	1.2	엉덩이	1	0.3
	小計	42	10.2		35	9.5
全身部	身	19	4.6	몸	12	3.2
	血	18	4.4	피	19	5.1
	骨	7	1.7	뼈	8	2.2
	小計	44	10.7		39	10.5
計		408	100.0		372	100.0

情緒 表現에 가장 많은 用例를 보이는 身體語彙는 日本語와 韓國語 모두 「目/눈」이며, 신체부위별로 일·한 모두 「頭部」-「胴體部」-「四肢部」-「全身部」순으로 나타났으며, 출현비율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어의 「眉」와

「顎」에는 용례가 있는 반면, 한국어의 눈썹과 턱에서는 그 용례를 찾아 볼 수가 없었다.

〈表1〉을 보면 日・韓 兩國語에 있어서 같은 身體部位를 가리키는 身體語彙인데도 다른 部位와 달리 日本語의 「首」「肝」「腸」에 대해, 韓國語의 경우 각각 「고개·목」과 「간·담」와 「애·뱃」등과 같이 여러 개의 身體語彙가 對應하고 있다. 이것은 日本語의 「きも」의 경우 「肝」내지는 「膽」으로 나타나지만 韓國語에 있어서는 「간(肝)」과 「담(膽)」이 각각 다른 部位로서 받아 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²³⁾ 그리고 「腸」에 대해서도 固有語인 「애·뱃」이 같은 部位를 가리키면서 慣用語句 중에서는 각각 獨特한 役割을 하고 있다²⁴⁾이 점에 대해서는 日本語 「首」에 對應하는 韓國語 「고개·목」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表2〉 情緒別 身體語彙 慣用語句 用例數

情 緒	日 本 語				韓 國 語			
	I 유형	II 유형	計	比率(%)	I 유형	III 유형	計	比率(%)
기쁨	60	43	103	25.2	48	27	75	20.1
슬픔	28	14	42	10.3	27	26	53	14.2
두려움	13	2	15	3.7	9	6	15	4.1
놀람	23	14	37	9.1	18	9	27	7.3
분노	30	33	63	15.4	27	16	43	11.5
증오	9	8	17	4.2	10	9	19	5.1
무끄러움	25	5	30	7.4	26	5	31	8.4
피로움	24	9	33	8.1	25	21	46	12.3
흥미	25	18	43	10.5	18	15	33	8.9
기타	12	13	25	6.1	10	20	30	8.1
計	249	159	408	100.0	218	154	372	100.0

23) 林八龍(1995) 「日・韓身體語彙慣用語句の對照考察Ⅱ」 한국외국어대학교

24) 金桂連(1991). 16면

4. 일·한 신체어휘 관용어구의 정서표현별 비교

4.1. 頭部

4.1.1 目/눈

〈表3〉 「目/눈」의 用例數 및 比率

情 緒	日 本 語				韓 國 語			
	I 유형	II 유형	計	比率(%)	I 유형	III 유형	計	比率(%)
기쁨	13	2	15	17.4	11	1	12	16.2
슬픔	5	0	5	5.8	4	2	6	8.1
두려움	1	0	1	1.2	1	0	1	1.4
놀람	9	5	14	16.3	7	2	9	12.1
분노	8	4	12	14.0	7	1	8	10.8
증오	7	1	8	9.3	8	3	11	14.9
무끄러움	2	0	2	2.3	2	0	2	2.7
괴로움	0	1	1	1.2	0	0	0	0.0
흥미	16	8	24	27.9	12	5	17	23.0
기타	1	3	4	4.6	1	7	8	10.8
計	62	24	86		53	21	74	

일본어에서의 「目」는 ‘目がしら’ ‘目じり’ 까지를 포함시켜 볼 때, 일본어 신체어휘 관용어구중에서 가장 많은 정서표현이 나타나는 신체부위이다. 그중에서 ‘흥미’가 가장 많은 용례를 보이고 그 다음이 ‘기쁨’ ‘놀람’ 순이다. 한국어에서의 「눈」도 조사대상 신체어휘 관용어구중에서 가장 많은 정서표현을 갖는 신체부위임을 알수 있었다. 「눈」에서 나타나는 정서표현으로는 눈의 범위를 ‘눈알’ ‘눈살’ 까지도 대상에 포함시켜서 조사해 본 결과 일본어와 동일하게 ‘흥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이 ‘기쁨’ ‘증오’ 순이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표현될 만큼 인간의 喜怒哀樂을 말해주는 신체의 일부분으로서 눈에 관한 비유는 많이 있다. 또한 눈만큼 드러나는 대상을 잘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인간은 정보를 대부분 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눈은 인간의 신체부위 중에서 미묘한 표정이나 움직임에 의해 직접 외부 세계를 향하여 내부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知覺기관의 대표인 것이다²⁵⁾. 이런 점에서 정서표현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한다.

25) 林八龍(1997)

분노로 ‘모’를 세운 화난 눈의 비유로 많이 사용된다. 이는 한국어의 「눈에 모를 세우다」에 대응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모’는 물건의 거죽으로 튀어나온 날카로운 부분을 말하는데 이는 양갈음을 하려고 버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시 같은 ‘분노’의 정서표현인 「目をむく」는 눈을 크게 부릅뜨고 화내며 쬔대보다의 의미로 「눈을 부릅뜨다」와 대응하는 표현이다. 「눈을 부릅뜨다」는 화가 나서 보기 사납도록 눈을 크게 뜨는 것을 말한다. 화가 나서 상대방을 위협할 때는 눈동자가 커지고 눈동자의 방향을 위쪽이나 옆쪽으로 이동시킴으로서 상대방의 몸에 직접 손을 대지 않지만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상대방에게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韓国語에만 있는 「눈에서 불이 나다」는 ‘분노’를 ‘불’에 비유한 표현으로 일본어에는 없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日本語에서 「目から火が出る」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머리카락이나 얼굴을 뭔가에 심하게 부딪쳐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쓰는 표현으로 분노의 표현과는 차이가 있다. ‘놀람’에서 「目を見張る」는 어떤 것을 보고 놀라서 눈을 크게 뜨다의 의미이며 「눈이 휘둥그레지다」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휘둥그레지다」는 「둥그레지다」보다 강조된 표현으로 몹시 놀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눈이 등잔만해지다」도 눈의 매우 둥근 모습을 ‘등잔’에 비유한 과장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일본어의 「目を皿にする」도 놀랐을 때 눈이 커진 모습을 등근 접시에 비유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4.1.2. 顔 / 얼굴(체면, 낯)

〈表4〉 「顔/얼굴·체면·낯」의 用例數 및 比率

情 緒	日本語				韓国語			
	I 유형	II 유형	計	比率(%)	I 유형	III 유형	計	比率(%)
기쁨	3	1	4	11.4	3	2	5	13.9
슬픔	2	0	2	5.7	2	0	2	5.6
두려움	3	0	3	8.6	1	3	4	11.1
놀람	3	0	3	8.6	3	1	4	11.1
분노	1	1	2	5.7	1	1	2	5.6
증오	0	0	0	0.0	0	0	0	0.0
부끄러움	16	3	19	54.4	17	1	18	50.0
괴로움	1	0	1	2.8	1	0	1	2.7
흥미	0	0	0	0.0	0	0	0	0.0
기타	0	1	1	2.8	0	0	0	0.0
計	29	6	35		28	8	36	

얼굴은 눈, 코, 입, 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위이며 첫인상을

좌우하고 사람을 알아보는데 가장 확실한 신체부위이다. 또한 모든 감정이 제일 먼저 얼굴에 나타나므로 인간을 평가하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 태도로 나타나는 體面, 面目, 地位 등의 의미로 비유적으로 관용되기도 한다.

「顔/얼굴」에서 나타나는 정서표현으로는 兩國語 모두 ‘부끄러움’에 관한 표현이 가장 많아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표현으로는 ‘증오’ ‘흥미’이며 한국어에서는 ‘증오’ ‘흥미’ ‘기타’부분으로 나타났다. 부끄러움은 타인 앞에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해지며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한 ‘부끄러움’은 타인의 비판, 평가, 거부를 두려워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인간이 창피할 때나 흥분할 때는 부교감신경의 활동으로 안면의 혈관이 넓어져 얼굴이 붉어지기에 이와 관련된 표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顔に紅葉を散らす」는 소녀들이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이 빨갛게 물들다의 의미로 한국어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표현으로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비유표현상의 차이는 보이지만, 홍당무나 紅葉이 같은 붉은 계열의 색을 띠는 것으로, 일본어나 한국어나 「붉음」이 「부끄러움」의 정서에 공통되게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顔から火が出る」또한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새빨개지다. 또는 매우 부끄러운 생각이 들다의 의미로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에서 불이 날 만큼 부끄럽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얼굴이 화끈거리다」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顔に泥を塗る」는 한국어의 「얼굴에 먹칠을 하다」에 대응하는 표현이나, 이밖에도 한국어에는 「얼굴에 똥칠을 하다」라는 표현도 있어 얼굴에 검은 무언가를 바르는 표현으로 체면이 손상됨을 나타냈다는 것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부끄러움’을 느낄 때에 나타나는 양상이 日・韓・兩國語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얼굴색이 붉어진다던가, 열을 받아 달아오른다던가, 얼굴에 검은 무언가를 바름으로서 체면에 손상을 가져오는 것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1.3. 鼻/코

〈表5〉 「鼻/코」의 用例數 및 比率

情緒	日本語				韓国語			
	I 유형	II 유형	計	比率(%)	I 유형	III 유형	計	比率(%)
기쁨	5	4	9	32.1	4	4	8	44.5
슬픔	1	0	1	3.6	1	0	1	5.5
두려움	0	1	1	3.6	0	0	0	0.0
놀람	0	1	1	3.6	0	0	0	0.0
분노	0	4	4	14.3	0	1	1	5.5
증오	1	0	1	3.6	1	0	1	5.5
무끄러움	1	1	2	7.1	1	0	1	5.5
괴로움	0	0	0	0.0	0	0	0	0.0
흥미	0	3	3	10.7	0	1	1	5.5
기타	5	1	6	21.4	3	2	5	27.9
計	13	15	28		10	8	18	

코는 얼굴에서 눈과 함께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얼굴의 대칭을 이루는 중앙부이기도 하다. 이러한 「코」는 냄새를 맡는 후각기능이외에 자신의 굳은 의지, 꺾일 줄 모르는 고집 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으시땀, 우쭐함, 자신감, 자존심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일본어의 「鼻」도 「코」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존재에 관해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고 자신을 지칭할 때 한국에서는 가슴에 손을 얹지만 일본에서는 손으로 자신의 코를 가리키던가, 자만할 때 표현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자존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멸하듯이 차갑게 비웃는 것으로 「鼻の先で笑う」와 「鼻であしらう」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코웃음을 치다」, 「코방귀를 뀌다」에 대응하는 표현이다. 이보다 경멸의 정도가 심한 표현에 「鼻もうごかない」가 있어 「코방귀도 안 나온다」에 대응하고 있다. 이는 「鼻/코」에서 나타나는 자만심 내지는 자존심과 그러한 감정으로 인해 생기는 상대방을 깔보고 비웃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4.1.4. 頭/머리

〈表6〉 「頭/머리」의 用例數 및 比率

情緒	日本語				韓國語			
	I 유형	II 유형	計	比率(%)	I 유형	III 유형	計	比率(%)
기쁨	0	0	0	0.0	0	1	1	4.3
슬픔	0	0	0	0.0	0	0	0	0.0
두려움	0	0	0	0.0	0	0	0	0.0
놀람	0	1	1	5.9	0	1	1	4.3
분노	3	1	4	23.5	3	0	3	13.1
증오	0	0	0	0.0	0	0	0	0.0
부끄러움	2	0	2	11.8	2	0	2	8.7
괴로움	5	0	5	29.4	5	4	9	39.2
흥미	2	1	3	17.6	2	1	3	13.0
기타	2	0	2	11.8	2	2	4	17.4
計	14	3	17		14	9	23	

인간의 감각 기관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머리는 인체를 통제하는 중심인
 腦가 있어 인간의 사고나 감정등 모든 知覺이나 感覺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思考’, ‘考慮’, ‘記憶’을 상징해 비유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머리가 나타내는 정서표
 현에는 兩國語 모두 思考力을 바탕으로하는 ‘괴로움’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頭を痛める」의 사전적 의미로는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서 이것저것 고민하
 다이며, 「頭を抱える」는 머리를 감싸고 생각해야할 정도로 곤란해하라는 표현이
 다. 이는 몹시 고민하고 있는 상태로 「頭を痛める」보다 더 심각한 상태이다 「頭
 を悩ます」도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어떻게 해결해야만 좋을지 몰라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하라는 의미표현이다. 단지 「頭を痛める」 「頭を悩ます」에는
 계속 고민하면서 해결책 등을 검토중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머리」는
 「머리살」, 「골치」, 「골머리」로도 표현되는데, 이들은 「아프다」, 「씩이
 다」, 「얕다」등의 동사와 결합하여 ‘괴로움’을 나타내는 뜻으로 머리가 무겁고,
 아프고 복잡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1.5. 耳/귀

〈表7〉 「耳/귀」의 用例數 및 比率

情緒	日本語				韓國語			
	I 유형	II 유형	計	比率(%)	I 유형	III 유형	計	比率(%)
기쁨	0	1	1	6.3	0	1	1	6.7
슬픔	0	0	0	0.0	0	0	0	0.0
두려움	0	0	0	0.0	0	0	0	0.0
놀람	0	0	0	0.0	0	0	0	0.0
분노	4	2	6	37.5	3	1	4	26.7
증오	0	0	0	0.0	0	1	1	6.7
부끄러움	1	1	2	12.5	1	0	1	6.7
괴로움	0	0	0	0.0	0	0	0	0.0
흥미	6	1	7	43.7	4	3	7	46.6
기타	0	0	0	0.0	0	1	1	6.7
計	11	5	16		8	7	15	

귀는 외부세계의 자료들을 인간의 내적 질서에 알맞도록 정선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신체기관으로, 주의를 집중해 듣고 그것들을 해석, 판단하는 思考作用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기초 운동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²⁶⁾ 일반적으로 귀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 공포오한 등의 나쁜 느낌과 관심, 흥미, 반감, 부끄러움등의 복잡한 정서를 형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자극과 그를 통한 감정과 행동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²⁷⁾ 일본어의 ‘분노’의 정서표현인 「耳にさからう」와 「耳にさわる」는 말을 듣고 있다가 불쾌한 기분이 든다는 의미로 한국어의 「귀에 거슬리다」에 대응하는 표현이며, 「耳がいたい」도 귀에 고통을 느끼다. 충고 등을 듣기가 괴롭다, 불쾌하다라는 의미이다 「耳にたこができる」는 여러번 들어서 귀에 못이 생기다 라는 의미로 한국어의 「귀에 못이 박히다」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兩國語가 모두 여러번 들어서 귀찮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어에만 있는 표현인 「耳につく」경우도 한번 들은 것을 잊을 수 없다. 귀에 쟁쟁하다. 듣고 있자니 짜증이 나다. 여러번 듣고 있자니 불쾌하다는 의미로, 들어서 기분이 유쾌하지 않고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은 거북하고 언짢은 기분을 나타내는 분노의 표현이다. 그밖에 「耳がかゆい」도 동일한 의미로서 여러번 들어서 귀가 근질근질할 정도로 귀찮다라는 뜻인데 한국어의 ‘누군가가 나에게 관한 말을 하는 것 같다’의 「귀가 가렵다」와는 형태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일본어의 ‘흥미’의 표현인 「耳をすます」는 주로 실제 소리를 주목해서 잘 들으려

26)이경자(1999) 『우리말 신체어 형성』 충남대출판부 230면

27)김호용(1996) 「한·일 관용구에 관한 비교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 하는 것인데 비해 「耳をかたむける」은 소리보다는 무엇인가의 화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목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 대해 「耳をたてる」「耳をすます」와 「耳をかたむける」의 양쪽에 다 통하는 중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⁸⁾

이 밖에도 한국어에만 있는 ‘흥미’의 정서표현인 「귀가 번쩍 뜨이다」「귀가 솔깃하다」「귀가 쏠리다」등도 모두 듣는 사람의 자세에 주안점을 둔 ‘흥미’를 나타내는 정서표현이라 할 수 있다.

4.1.6. 11/입

〈表8〉 「口/입」의 用例數 및 比率

情 緒	日 本 語				韓 国 語			
	I 유형	II 유형	計	比率(%)	I 유형	III 유형	計	比率(%)
기쁨	1	0	1	7.7	1	4	5	26.3
슬픔	0	0	0	0.0	0	0	0	0.0
두려움	0	0	0	0.0	0	1	1	5.3
놀람	2	0	2	15.3	2	0	2	10.5
분노	3	4	7	53.9	3	1	4	21.0
증오	0	0	0	0.0	0	3	3	15.8
무끄러움	1	0	1	7.7	1	0	1	5.3
괴로움	0	0	0	0.0	0	0	0	0.0
흥미	0	0	0	0.0	0	3	3	15.8
기타	0	2	2	15.4	0	0	0	0.0
計	7	6	13		7	12	19	

입은 말을 하고 음식을 취한다는 인간 생활에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언어의 관용구에도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 發話, 말, 味覺이나 食口, 出入口를 상징한다. 한국어에만 있는 ‘기쁨’의 정서표현인 「입이 찢어지다」는 기쁨을 감추지 못해 입모양이 벌어진 모습이고 「입이 함박만하다」도 좋아서 입이 크게 벌어진 모양을 ‘함박’에 비유하고 있다. 함박은 함지박의 준말로써 ‘통나무 속을 따서 큰 바가지 같이 만든 그릇’으로 韓國文化에서만 볼 수 있는 용기로서 비유어에 반영된 것이다. 이외에 「입이 벌어지다」, 「입을 다물지 못하다」의 표현 또한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쁨’의 정서표현이 본어의 「口」에는 없었다.

일본어의 「口が酸っぱくなる」는 한국어로 입이 시어지다인데,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는 「입에서 신물이 나다」가 있다. 이것은 같은 말을 너무 많이 되풀이 할

28)宮地裕(1982) 『慣用語の意味と用法』 明治書院

때 쓰는 표현으로 兩國 모두 ‘すっぱい’ 나 ‘신물’처럼 신 것에 비유하고 있다.

4.1.7. 首/고개(목·모가지)

〈表9〉 「首/고개·목·모가지」의 用例數 및 比率

情緒	日本語				韓国語			
	I 유형	II 유형	計	比率(%)	I 유형	III 유형	計	比率(%)
기쁨	2	0	2	18.2	2	0	2	13.3
슬픔	4	1	5	45.5	4	2	6	40.0
두려움	1	0	1	9.1	1	0	1	6.7
놀람	0	0	0	0.0	0	0	0	0.0
분노	2	0	2	18.2	2	1	3	20.0
증오	0	0	0	0.0	0	0	0	0.0
부끄러움	0	0	0	0.0	0	1	1	6.7
괴로움	0	0	0	0.0	0	0	0	0.0
흥미	0	1	1	9.1	0	0	0	0.0
기타	0	0	0	0.0	0	2	2	13.3
計	9	2	11		9	6	15	

「首/고개·목」에 있어서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의 情緒는 兩國語 모두에 나타나지만, ‘흥미’의 정서는 「首」에만 ‘부끄러움’과 ‘기타(존경)’의 정서는 「고개」에서만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 「목」은 주로 ‘슬픔’의 정서표현에 관여하고 「고개」는 슬픔을 제외한 나머지 정서표현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의 ‘분노’의 정서표현인 「목에 핏대를 세우다」는 화가 났을 때 목에 힘이 들어가서 핏줄이 서는 모양을 보고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 할수 있다.

4.1.8. 眉(眉毛)/눈썹

〈表10〉 「眉/눈썹」의 用例數 및 比率

情緒	日本語				韓国語			
	I 유형	II 유형	計	比率(%)	I 유형	III 유형	計	比率(%)
기쁨	0	2	2	22.2	0	0	0	0.0
슬픔	0	3	3	33.4	0	0	0	0.0
두려움	0	0	0	0.0	0	0	0	0.0
놀람	0	0	0	0.0	0	0	0	0.0
분노	0	2	2	22.2	0	0	0	0.0
증오	0	1	1	11.1	0	0	0	0.0
부끄러움	0	0	0	0.0	0	0	0	0.0
괴로움	0	0	0	0.0	0	0	0	0.0
흥미	0	0	0	0.0	0	0	0	0.0
기타	0	1	1	11.1	0	0	0	0.0
計	0	9	9		0	0	0	

일본어의 「眉」에 나타나는 정서표현은 「기쁨」「슬픔」「증오」「기타」 등으로 9개항목이다. 눈썹은 눈 바로 위에 해당하는 부위에 활 모양으로 나 있는 털을 가리킨다. 눈썹 부위의 피부등의 움직임으로 얼굴에 여러 표정이 나타나지만 그 생리적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기분이나, 표정을 「눈」에 한정해서 취급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더 나아가 눈의 윗부분인 「눈썹」의 영역까지도 이용하고 있다.

4.1.9. 齒/이

〈表11〉 「齒/이」의 用例數 및 比率

情緒	日本語				韓國語			
	I 유형	II 유형	計	比率(%)	I 유형	III 유형	計	比率(%)
기쁨	0	1	1	14.3	0	0	0	0.0
슬픔	0	0	0	0.0	0	0	0	0.0
두려움	1	0	1	14.3	1	0	1	25.5
놀람	0	0	0	0.0	0	0	0	0.0
분노	2	1	3	42.8	1	1	2	50.0
증오	0	1	1	14.3	0	0	0	0.0
부끄러움	0	0	0	0.0	0	0	0	0.0
괴로움	1	0	1	14.3	1	0	1	25.5
흥미	0	0	0	0.0	0	0	0	0.0
기타	0	0	0	0.0	0	0	0	0.0
計	4	3	7		3	1	4	

「齒/이」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정서표현은 「두려움」 「분노」 「괴로움」이다. 이는 우리몸의 가장 단단한 부분인데 ‘이가 덜덜 떨리다’ 나 ‘이를 갈다’라고 할 정도면 그 두려움이나, 분노의 정도가 어떠한지 감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표현이다. 한국어 「이」에 없는 표현으로 일본어의 「齒にあう」는 우리말의 ‘입에 맞다’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4.1.10. 顎/턱

〈表12〉 「顎/턱」의 用例數 및 比率

情緒	日本語				韓國語			
	I 유형	II 유형	計	比率(%)	I 유형	III 유형	計	比率(%)
기쁨	0	6	6	100.0	0	0	0	0.0
슬픔	0	0	0	0.0	0	0	0	0.0
두려움	0	0	0	0.0	0	0	0	0.0
놀람	0	0	0	0.0	0	0	0	0.0
분노	0	0	0	0.0	0	0	0	0.0
증오	0	0	0	0.0	0	0	0	0.0
무끄러움	0	0	0	0.0	0	0	0	0.0
괴로움	0	0	0	0.0	0	0	0	0.0
흥미	0	0	0	0.0	0	0	0	0.0
기타	0	0	0	0.0	0	0	0	0.0
計	0	6	6		0	0	0	

「顎/턱」의 경우는 일본어의 「顎」에서만 정서표현을 볼 수 있었다. 「顎」에서 나타나는 정서표현은 모두 「기쁨」으로 음식의 맛이 좋거나 몹시웃는다든지, 거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특히 아래턱이 돌출된 것은 인간에게서만 볼 수 있고, 고등한 유인원에게서도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부각시켜 일본어에서는 거만한 태도를 취하는것에 비유하여 ‘顎をなでる’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4.2. 胴体部

4.2.1. 胸/가슴

〈表13〉 「胸/가슴」의 用例數 및 比率

情緒	日本語				韓国語			
	I 유형	II 유형	計	比率(%)	I 유형	III 유형	計	比率(%)
기쁨	18	1	19	39.6	15	4	19	37.2
슬픔	8	2	10	20.8	8	7	15	29.4
두려움	0	0	0	0.0	0	1	1	2.0
놀람	2	1	3	6.3	1	2	3	5.9
분노	2	3	5	10.4	2	0	2	3.9
증오	0	3	3	6.3	0	0	0	0.0
부끄러움	0	0	0	0.0	0	0	0	0.0
괴로움	7	1	8	16.7	7	4	11	21.6
흥미	0	0	0	0.0	0	0	0	0.0
기타	0	0	0	0.0	0	0	0	0.0
計	37	11	48		33	18	51	

내부에 폐나 심장을 담고 있는 가슴은 胴体の 윗부분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부위로서 「배」와 마찬가지로 신체의 内臟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중요한 신체부 위중의 하나이다. 가슴은 인간의 감정이나 마음(心)등의 心情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비유적,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胸/가슴」의 정서표현은 日・韓 両国語 모두 조사대상 신체어휘 관용어구 중에서 「目/눈」다음으로 많은 항목의 정서표현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가슴이 다양한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長谷川潔(1974)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胸をいためる」「胸をしめつけられる」「胸がふさがる」など、精神状態苦悶は胸であらわすことが多い。「安堵の胸をさすった」「胸がすつとした」などは「胸のつかえ」がおちた時のことばである。胸の中には心臓がある。人の感情は心臓の感動に影響するから、胸をつかった感情表現が多いのである。²⁹⁾

‘기쁨’의 정서표현인 「胸をおどらせる」「胸をはづませる」「胸をふくらます」는 모두 기쁨이나 기대감등으로 가슴이 부풀고 설레며 두근두근하는 흥분되고 격앙된 상태를 나타낸다. 한국어에만 있는 「가슴이 떨리다」는 ‘기쁨’뿐만 아니라 뭔가를 두려워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슬픔’의 정서표현인 「胸がつかえる」는 걱정거리나 깊은 슬픔으로 말문이 막힐

29) 長谷川潔 『日本語と英語—その発想と表現』 サイマル出版会 56면

정도로 가슴이 비어지다라는 의미이고 「胸がはりさける」는 슬픔, 후회등으로 가슴이 찢어질 듯이 괴로운 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胸がさける」의 강조표현이다. 한국어에만 있는 「가슴이 터지다」 「가슴에 파명이 들다」 「가슴을 도려내다」는 마음의 상처로 인한 아픔을 신체 내부기관의 損傷으로 표현하고 있는 例라고 할 수 있다.

4.2.2. 腹/배

〈表14〉 「腹/배」의 用例數 및 比率

情緒	日本語				韓国語			
	I 유형	II 유형	計	比率(%)	I 유형	III 유형	計	比率(%)
기쁨	0	8	8	47.1	0	0	0	0.0
슬픔	0	1	1	5.9	0	0	0	0.0
두려움	0	0	0	0.0	0	0	0	0.0
놀람	0	0	0	0.0	0	0	0	0.0
분노	0	5	5	29.4	0	1	1	20.0
증오	0	2	2	11.8	0	1	1	20.0
부끄러움	0	0	0	0.0	0	0	0	0.0
괴로움	0	0	0	0.0	0	0	0	0.0
흥미	1	0	1	5.9	1	0	1	20.0
기타	0	0	0	0.0	0	2	2	40.0
計	1	16	17		1	4	5	

일본어의 「腹」에서는 '기쁨'의 정서표현이 거의 주를 이루는 반면 한국어의 「배」에서는 '기타(질투)'의 정서표현이 주를 이루었다. 「腹をかかえる」는 배를 움켜쥐면서 抱腹絶倒하는 것을 의미하며, 「腹がよじる」나 「腹の皮がよじれる」는 배가 뒤틀릴 정도로 혹은 배꼽이 빠질도록 크게 웃는 상태를 나타낸다. 웃음이 그치지 않을 때는 복부가 뒤틀릴 듯한 아픔을 느끼거나 또는 배를 끌어안고 웃게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의 「腹」는 웃음을 인식하는 신체부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어의 '기쁨'의 정서는 「배」보다는 「배꼽」또는 「허리」에 비유한 표현이 많다 「배꼽을 잡다」 「배꼽이 빠지다」나 「허리가 끊어지다」등으로 표현하는 점에서 일본어에서의 '기쁨'의 정서표현과는 차이를 보인다. 일본어에만 있는 '분노'의 정서표현인 「腹がたつ」 「腹をたてる」는 화가 나다와 화를 내다의 의미이다. 일본에서는 近世前에, 인간의 몸속에는 9가지의 벌레가 살고 있어 이들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거나 마음속의 의식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배속의 벌레가 평상시에는 잠자코 있다가 자극을 받으면 벌떡 일어나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여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은 아닐까 「腹の虫がお

さまらない」 역시 같은 발상에서 나온 표현이라 생각한다. 「腹にすえかえる」도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이 「腹」에서 나타나는 ‘분노’의 정서표현을 한국어의 「배」에서는 찾아볼 수 가 없었다. 한국어에만 있는 「배가 아프다」는 배탈이 난 경우에도 사용되지만, 여기에서의 의미는 남의출세, 행운등이 부러워서 견딜 수 없는 것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배를 앓다」 「배가 뒤틀리다」에서의 「배」는 ‘마음’, ‘속마음’의 의미로 마음이 상함이나 질투나 마음이 상함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표현도 일본어의 「腹」에서는 찾을 수 없는 표현이다.

4.2.3. 肝/간·담

〈表15〉 「肝/간·담」의 用例數 및 比率

情 緒	日 本 語				韓 国 語			
	I 유형	II 유형	計	比率(%)	I 유형	III 유형	計	比率(%)
기쁨	0	1	1	9.1	0	1	1	8.3
슬픔	1	1	2	18.2	1	2	3	25.0
두려움	1	0	1	9.1	1	1	2	16.7
놀람	3	1	4	36.4	2	2	4	33.3
분노	0	1	1	9.1	0	2	2	16.7
증오	0	0	0	0.0	0	0	0	0.0
부끄러움	0	0	0	0.0	0	0	0	0.0
괴로움	0	1	1	9.1	0	0	0	0.0
흥미	0	0	0	0.0	0	0	0	0.0
기타	0	1	1	9.1	0	0	0	0.0
計	5	6	11		4	8	12	

「肝/간·담」에 있어서 ‘슬픔’, ‘놀람’의 정서표현에 両国語 모두가 많은 용례를 보이고 있고, ‘기타(실망)’의 정서는 「肝」에서만 보여진다.

「肝」에 ‘놀람’의 정서표현이 많이 보여지는 이유에 대해 長谷川潔(1974)는 「膽力이라는 말처럼 뱃속의 膽에서 힘이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간·담」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肝/간·담」은 몸의 내장의 根幹이고 생명의 근원이 존재하는 소중한 기관이다. 그래서 그런지 외구세계에 대한 행위나 동작과는 거의 관계없이 주로 인간의 내면적인 정신세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4.2.4. 腰/허리

〈表16〉 「腰/허리」의 用例數 및 比率

情緒	日本語				韓国語			
	I 유형	II 유형	計	比率(%)	I 유형	III 유형	計	比率(%)
기쁨	1	1	2	28.6	1	1	2	33.3
슬픔	0	0	0	0.0	0	0	0	0.0
두려움	0	0	0	0.0	0	0	0	0.0
놀람	0	3	3	42.8	0	0	0	0.0
분노	0	0	0	0.0	0	0	0	0.0
증오	0	0	0	0.0	0	0	0	0.0
부끄러움	0	0	0	0.0	0	0	0	0.0
괴로움	0	0	0	0.0	0	3	3	50.0
흥미	0	0	0	0.0	0	0	0	0.0
기타	1	1	2	28.6	1	0	1	16.7
計	2	5	7		2	4	6	

허리는 신체를 지탱하는 부분으로서, 신체의 움직임이나 자세와 직접 관계가 있는 부위로 인간의 감정표현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어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정서표현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한국어에서는 허리를 사용해서 '기쁨'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고 일본어의 「腰」에서는 주로 '놀람'의 정서에 관해서 표현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腰をぬかす」「腰がぬける」는恐怖나 너무 놀란 나머지 허리의 힘이 빠져 서 있을 수조차 없게됨을 「腰」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한국어에서는 볼 수 없는 일본어만의 독특한 표현이다.

웃는 모습이 '얼굴표정'과 관련된 것이라면 폭소는 웃는 몸동작과 상관성이 깊다 재미있는 일이나 광경에서 흥을 느끼면 웃음을 수반하게 되는데 특히 내면에 정말로 재미있는 감정이 들어있을 때 폭발적인 웃음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어의 「허리를 잡다」는 폭소할 때 웃는 모습을 비유한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신체부위는 다르지만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배꼽을 잡다」「배꼽을 빼다」「배꼽이 빠지다」등을 꼽을 수 있다. 즉, 한국어에서는 허리와 배꼽에서 기쁨의 유쾌한 정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어에서는 「腰」가 아닌 「腹」와 「臍」에서 폭소등과 같은 유쾌한 정서가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같은 '기쁨'의 정서라도 나라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 있음을 알 수 있는 事例라고 하겠다.

4.2.5. 臍/배꼽

〈表17〉 「臍/배꼽」의 用例數 및 比率

情緒	日本語				韓国語			
	I 유형	II 유형	計	比率(%)	I 유형	III 유형	計	比率(%)
기쁨	5	0	5	83.3	2	2	4	100.0
슬픔	0	0	0	0.0	0	0	0	0.0
두려움	0	0	0	0.0	0	0	0	0.0
놀람	0	0	0	0.0	0	0	0	0.0
분노	0	1	1	16.7	0	0	0	0.0
증오	0	0	0	0.0	0	0	0	0.0
부끄러움	0	0	0	0.0	0	0	0	0.0
괴로움	0	0	0	0.0	0	0	0	0.0
흥미	0	0	0	0.0	0	0	0	0.0
기타	0	0	0	0.0	0	0	0	0.0
計	5	1	6		6	2	4	

한국어의 「배꼽」에서 볼 수 있는 정서표현으로는 '기쁨'이 유일하며 일본어에서는 '기쁨'외에 '분노'의 표현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어의 「臍で茶をわかす」는 「臍が茶をわかす」라고도 표현하며 우스워 죽겠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외에 「臍がよれる」나 「臍がくねる」도 유사한 표현으로 抱腹絶倒할 정도로 우습다는 것을 나타낸 표현이다. 이에 해당하는 한국어 표현이 「배꼽이 빠지다」인데, 이외에도 한국어에서만 볼 수 있는 「배꼽을 잡다」 「배꼽을 쥐다」라는 표현은 일본어의 「腹をかかえる」 「腹の皮をよる」에 대응하는 표현이라 하겠다. 결과적으로 '기쁨'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한국어의 경우는 「허리」와 「배꼽」의 신체 어휘를 통해서 표현하고 일본어의 경우는 「腹」와 「臍」을 이용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4.2.6. 腸/애·벨·애간장

〈表18〉 「腸/애·벨·애간장」의 用例數 및 比率

情 緒	日 本 語				韓 國 語			
	I 유형	II 유형	計	比率(%)	I 유형	III 유형	計	比率(%)
기쁨	0	1	1	20.0	0	0	0	0.0
슬픔	2	0	2	40.0	2	8	10	31.2
두려움	0	0	0	0.0	0	0	0	0.0
놀람	0	0	0	0.0	0	0	0	0.0
분노	2	0	2	40.0	1	4	5	62.5
중요	0	0	0	0.0	0	0	0	0.0
무끄러움	0	0	0	0.0	0	0	0	0.0
괴로움	0	0	0	0.0	0	1	1	6.3
흥미	0	0	0	0.0	0	0	0	0.0
기타	0	0	0	0.0	0	0	0	0.0
計	4	1	5		3	13	16	

「腸」과 「애·벨」을 포함하는 정서표현 관용어구는 일본어보다 한국어에 많은 用例를 보이고 있으며, ‘슬픔’과 ‘분노’의 정서표현에는 兩國語가 모두 이용되고 있고, ‘기쁨’의 정서는 「腸」에서만 볼 수 있다. 특히 「腸」의 경우는 ‘슬픔’의 정서표현과 관계가 있고 한국어 「애·벨」을 포함하는 관용어구의 경우는 각각 그 役割이 나뉘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애」의 경우는 주로 ‘슬픔’의 정서표현에 이용되고 있고, 「벨」의 경우는 ‘분노’의 정서표현에 관계하고 있다.

한편 沈在箕(1982)³⁰⁾는 現代語 「애」는 슬픔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獨立形으로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꿎다」「애달다」등의 複合語로서 사용되고, 그 전체의 의미가 「애」라는 語의 影響으로 ‘슬픔’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30) 沈在箕(1982) 『國語語彙論』 集文堂 161면

4.3. 四肢部

4.3.1. 肩/어깨

〈表19〉 「肩/어깨」의 用例數 및 比率

情緒	日本語				韓国語			
	I 유형	II 유형	計	比率(%)	I 유형	III 유형	計	比率(%)
기쁨	6	5	11	57.9	4	1	5	38.5
슬픔	0	0	0	0.0	0	1	1	7.7
두려움	2	0	2	10.5	1	0	1	7.7
놀람	0	0	0	0.0	0	0	0	0.0
분노	1	0	1	5.3	1	0	1	7.7
중오	0	0	0	0.0	0	0	0	0.0
무끄러움	1	0	1	5.3	1	0	1	7.7
괴로움	1	0	1	5.3	1	0	1	7.7
흥미	0	1	1	5.3	0	0	0	0.0
기타	2	0	2	10.5	2	1	3	23.1
計	13	6	19		10	3	13	

한국어 「어깨」에서 나타난 정서표현으로는 ‘기쁨’이 가장 많았으며 일본어의 「肩」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한국어 표현에서 어떤 일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네 어깨에 달려있다’라든가 ‘어깨의 짐이 무겁다’라고 표현하듯이 일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肩」는 책임, 부담을 느끼는 부분으로 쓰이고 있다. 일본어의 「肩が軽くなる」와 「肩の荷がおりる」는 무거운 책임, 부담등에서 해방되어 마음이 홀가분하고 짐의 중량감이 사라진 편안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어의 「어깨가 가볍다」 「어깨가 가벼워지다」에 대응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신감을 느끼는 사람은 어깨를 똑바로 세워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낸다는지 어깨를 펴서 도도한 자세로 자신감에 부풀어 자기 자신을 가능한 한 크게 보이도록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어의 「어깨」나 일본어의 「肩」도 모두 외견상 위세, 힘의 상징으로서 성격이 강하다. 「肩で風をきる」는 어깨바람을 내며 기세 등등한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며 「肩身がひろい」도 체면을 세우며 남들에게 대해 떳떳하고 자랑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肩をそびやかす」는 한국어의 「어깨를 으쓱거리다」에 대응하는데 이 경우도 남들보다 자신이 우월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나온 행동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기타’의 정서에 해당하는 ‘실망’은 기대의 미달이나 목표달성에 실패해서 모든 것이 가치가 없어 보일 때 나타나는 심리상태로서 몸에서 힘이 빠져 나가고 맥이 풀리는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자신감을 느끼는 사람이 어깨를 똑바로 펴서 자신을 가능

한 한 크게 보이도록 표현하는데 비해,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절망에 당면하게 되면 힘이 빠지게 되고 따라서 어깨의 힘이 빠지거나 늘어지거나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肩をおとす」는 힘이 빠져 양팔이 아래로 늘어진다는 의미로 실망하거나 기력을 잃거나 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한국어의 「어깨를 늘어뜨리다」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肩/어깨」에서는 兩國語 공통적으로 어깨의 輕重에 따라 어떤 책임이나 부담의 有無를 나타내고 있었고, 또 어깨를 펴고 올리는 행동은 자신감을, 어깨를 움츠리고 늘어뜨리는 행동은 두려움이나 실망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었다. 「어깨춤을 추다」는 신명남을 동반한 '기쁨'의 정서표현으로 한국어에만 있는 독특한 표현이다.

4.3.2. 足/발

〈表20〉 「足/발」의 用例數 및 比率

情緒	日本語				韓国語			
	I 유형	II 유형	計	比率(%)	I 유형	III 유형	計	比率(%)
기쁨	0	2	2	20.0	0	3	3	21.4
슬픔	2	2	4	40.0	2	1	3	21.4
두려움	0	1	1	10.0	0	0	0	0.0
놀람	0	1	1	10.0	0	0	0	0.0
분노	0	0	0	0.0	0	0	0	0.0
증오	0	0	0	0.0	0	0	0	0.0
부끄러움	0	0	0	0.0	0	1	1	7.1
피로움	1	0	1	10.0	1	4	5	35.7
흥미	0	0	0	0.0	0	0	0	0.0
기타	0	1	1	10.0	0	2	2	14.3
計	3	7	10		3	11	14	

발은 손과 더불어 인체에서 운동의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의미상 서서 걸거나 앞으로 진행하는 물리적 기능을 주로 하는 신체부위이므로 동작이나 상태가 비유적으로 쓰이고 있다.

일본어의 「足が地につかない」는 기쁨이나 흥분등으로 발이 땅에 닿는지 어떤지 모르겠다는 데서 나온 것으로 들쭉날쭉 하며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관용어구로 일본 특유의 표현이다. 이 표현은 「足が地につく」가 편안함의 정서를 나타내는데 비해, 들뜬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4.3.3. 手/손

〈表21〉 「手/손」의 用例數 및 比率

情緒	日本語				韓國語			
	I 유형	II 유형	計	比率(%)	유형 I	III 유형	計	比率(%)
기쁨	1	2	3	37.5	1	1	2	28.6
슬픔	1	1	2	25.0	1	0	1	14.3
두려움	0	0	0	0.0	0	0	0	0.0
놀람	0	1	1	12.5	0	0	0	0.0
분노	0	0	0	0.0	0	1	1	14.3
증오	0	0	0	0.0	0	0	0	0.0
무끄러움	0	0	0	0.0	0	2	2	28.6
괴로움	0	2	2	25.0	0	0	0	0.0
흥미	0	0	0	0.0	0	1	1	14.3
기타	0	0	0	0.0	0	0	0	0.0
計	2	6	8		2	5	7	

日本語의 경우 신체어휘 관용어구중 「目」과 관련된 관용어구는 139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手」가 100례로 2번째를 차지한다. 韓國語의 경우도 「눈」이 93례로 가장 많고, 「손」이 57례로 역시 2번째를 차지하고 있다.³¹⁾

그러나 情緒를 表現하는 관용어구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이 물건을 만드는 기능, 일하는 도구의 기능, 물건을 잡거나 다듬는 등의 여러 가지 기능과 소유, 지배 권력등을 상징하는데 쓰이고 있다.

‘슬픔’의 「手に汗をにぎる」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곁에서 보고 있으면 몹시 애가 타거나 긴장이나 흥분하다 또는 걱정스럽다라는 의미로 韓國語의 「손(손바닥)에서 땀이 나다」와 그와 유사한 「손(손바닥)에 땀을 쥐다」에 대응하는 표현이다. 이처럼 손에 땀이 나는 것은 兩國語 모두 위험하거나 긴박한 상황에서 정신적 부담을 느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勝負를 예측할 수 없는 운동경기의 중계방송등에서 자주 들을수 있다.

31) 林八龍(1999) 「日・韓身体語彙慣用語の対象考察Ⅲ」 韓國외국어대학교

4.3.4. 尻/엉덩이

〈表22〉 「尻/엉덩이」의 用例數 및 比率

情緒	日本語				韓国語			
	I 유형	II 유형	計	比率(%)	I 유형	III 유형	計	比率(%)
기쁨	0	0	0	0.0	0	0	0	0.0
슬픔	0	1	1	20.0	0	0	0	0.0
두려움	0	0	0	0.0	0	0	0	0.0
놀람	0	0	0	0.0	0	0	0	0.0
분노	0	1	1	20.0	0	0	0	0.0
증오	0	0	0	0.0	0	0	0	0.0
부끄러움	0	0	0	0.0	0	0	0	0.0
괴로움	0	0	0	0.0	0	0	0	0.0
흥미	0	0	0	0.0	0	0	0	0.0
기타	1	2	3	60.0	1	0	1	100.0
計	1	4	5		1	0	1	

「尻」는 동물의 몸에서는 꼬리가 붙어 있는 몸의 가장 끝 부분이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 인간의 경우 다른 동물과 달라 직립보행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도 신체중 가장 말미의 부분이라는 의식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남을 업신여긴다든지 일의 긴박함을 나타내는데 표현되어진다고 생각한다. 일본어의 「尻」에 나타나는 「슬픔」과 「분노」의 표현은 한국어의 「엉덩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다.

4.4. 全身部

4.4.1. 身/몸

〈表23〉 「身/몸」의 用例數 및 比率

情緒	日本語				韓国語			
	I 유형	II 유형	計	比率(%)	I 유형	III 유형	計	比率(%)
기쁨	1	1	2	10.6	1	0	1	8.3
슬픔	0	2	2	10.6	0	1	1	8.3
두려움	4	0	4	21.1	3	0	3	25.0
놀람	1	0	1	5.2	1	0	1	8.3
분노	0	1	1	5.2	0	1	1	8.3
증오	0	0	0	0.0	0	0	0	0.0
부끄러움	1	0	1	5.2	1	0	1	8.3
괴로움	2	4	6	31.6	2	1	3	25.0
흥미	0	2	2	10.5	0	0	0	0.0
기타	0	0	0	0.0	0	1	1	8.3
計	9	10	19		8	4	12	

日本語에서 「身」의 유의어에 「身体」 혹은 「からだ」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身体」나 「からだ」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를 「눈에 보이고 손으로 접촉가능한」 구체적인 것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우이고, 이에 대해 「身」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적으로 다루지는 경우이다. 즉, 어느 하나의 대상을 「具象」으로 다룰지 「추상」으로 다룰지의 관점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근거하여 관용어구표현중에서 「体」보다는 「身」쪽이 많이 사용된 것은 의미가 추상적, 개념적으로 사용되어진걸로 엿보아진다. 일·한 모두 정서표현 관용어구에 있어서 「두려움」「괴로움」「기쁨」「슬픔」「놀람」「분노」등에 영역에 나타나고 있지만 「몸」보다는 「身」에 더 많은 표현이 나타났다.

4.4.2. 血/피

〈表24〉 「血/피」의 用例數 및 比率

情緒	日本語				韓國語			
	I 유형	II 유형	計	比率(%)	I 유형	III 유형	計	比率(%)
기쁨	4	0	4	22.2	3	0	3	15.8
슬픔	2	0	2	11.1	2	2	4	21.0
두려움	0	0	0	0.0	0	0	0	0.0
놀람	3	0	3	16.7	2	1	3	15.8
분노	2	2	4	22.2	2	0	2	10.5
증오	1	0	1	5.5	1	0	1	5.3
부끄러움	0	0	0	0.0	0	0	0	0.0
괴로움	3	0	3	16.7	3	2	5	26.3
흥미	0	1	1	5.5	0	1	1	5.3
기타	0	0	0	0.0	0	0	0	0.0
計	15	3	18		13	6	19	

피는 일반적인 신체어휘의 성격과 달리, 신체의 특정기관이나 부위가 아니라 거의 몸전체에 걸쳐서 구비되어 작용하는 총체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다. 피는 외부 부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행동이나 동작과 직접관련이 없고, 게다가 인체의 내부 혈관속을 흐르고 있어서 직접눈으로 보여지는 대상도 아니다. 인체의 내부기관이 그렇듯이 피의 경우도 인간의 내면세계의 감정이나 심리태도와 관련이 있는 듯하여 정서표현이 나타나는 것 같다. 양국어 모두 「두려움」 「부끄러움」 「기타」에는 정서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

4.4.3. 骨/뼈

〈表25〉 「骨/뼈」의 用例數 및 比率

情緒	日本語				韓國語			
	I 유형	II 유형	計	比率(%)	I 유형	III 유형	計	比率(%)
기쁨	0	4	4	57.1	0	1	1	12.5
슬픔	0	0	0	0.0	0	0	0	0.0
두려움	0	0	0	0.0	0	0	0	0.0
놀람	0	0	0	0.0	0	0	0	0.0
분노	0	0	0	0.0	0	0	0	0.0
증오	0	0	0	0.0	0	1	1	12.5
부끄러움	0	0	0	0.0	0	0	0	0.0
괴로움	3	0	3	42.9	4	2	6	75.0
흥미	0	0	0	0.0	0	0	0	0.0
기타	0	0	0	0.0	0	0	0	0.0
計	3	4	7		4	4	8	

뼈는 피와 마찬가지로 신체의 특정부위나 기관이 아니라 거의 몸 전체에 걸쳐 구비되어 있는 조직의 총칭이다. 「뼈」를 이용한 관용어구 예는 일·한 양국어에 공통으로 「全身部」 중에서 가장 적은 편이다. 뼈는 동물의 몸의 중심으로 통하고 있고 몸의형태를 만들고 지탱하는 작용을 한다. 또한 피와 나란히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점과 관련되어 뼈는 사물의 중심을 이루는 소중한 것에 자주 비유되고 긴요하다는 뜻이 되고 더욱이 개념적으로는 인간의 정신적인 신념이나 기력의 뜻, 혹은 아주 깊은 마음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그러나 「뼈/骨」를 이용한 정서표현 관용어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양국어 모두 「기쁨」과 「괴로움」에 나타나고 韓國語의 경우 日本語에는 없는 「증오」의 표현이 나타난다.

5. 신체어휘 관용어구의 일·한 비교

5.1. 신체어휘별 비교

本 研究에서 논의된 情緒表現에 관련된 身體語彙 慣用語句는 日本語가 408항목이고, 韓國語가 372항목이다.

〈表26〉 日本語身體語彙慣用語句와情緒表現통계표

구분		기쁨	슬픔	두려움	놀람	분노	증오	부끄러움	피로	흥미	기타	계	비율
日	관측값 ³²⁾	15	5	1	14	12	8	2	1	24	4	86	21.0
	기대값 ³³⁾	21.7	8.8	3.1	7.8	13.3	3.6	6.3	7.0	9.1	5.3		
顔	관측값	4	2	3	3	2	0	19	1	0	1	35	8.6
	기대값	8.8	3.6	1.3	3.2	5.4	1.5	2.6	2.8	3.7	2.1		
鼻	관측값	9	1	1	1	4	1	2	0	3	6	28	6.9
	기대값	7.1	2.9	1.0	2.5	4.3	1.2	2.1	2.3	2.9	1.7		
頭	관측값	0	0	0	1	4	0	2	5	3	2	17	4.2
	기대값	4.3	1.8	0.6	1.5	2.6	0.7	1.2	1.5	1.8	1.0		
耳	관측값	1	0	0	0	6	0	2	0	7	0	16	3.9
	기대값	4.0	1.6	0.6	1.5	2.5	0.6	1.2	1.3	1.7	0.9		
口	관측값	1	0	0	2	7	0	1	0	0	2	13	3.2
	기대값	3.3	1.3	0.5	1.2	2.0	0.5	0.9	1.0	1.4	0.8		
首	관측값	2	5	1	0	2	0	0	0	1	0	11	2.7
	기대값	2.8	1.1	0.4	1.0	1.7	0.4	0.8	0.9	1.1	0.6		
眉	관측값	2	3	0	0	2	1	0	0	0	1	9	2.2
	기대값	2.3	0.9	0.3	0.8	1.4	0.4	0.7	0.7	0.9	0.5		
齒	관측값	1	0	1	0	3	1	0	1	0	0	7	1.7
	기대값	1.7	0.7	0.2	0.6	1.2	0.3	0.5	0.5	0.8	0.4		
顎	관측값	6	0	0	0	0	0	0	0	0	0	6	1.5
	기대값	1.5	0.6	0.2	0.5	0.9	0.2	0.4	1.8	0.6	0.4		
胸	관측값	19	10	0	3	5	3	0	8	0	0	48	11.8
	기대값	12.1	4.9	1.7	4.3	7.4	2.0	3.5	3.9	5.0	2.9		
腹	관측값	8	1	0	0	5	2	0	0	1	0	17	4.2
	기대값	4.3	1.8	0.6	1.5	2.6	0.7	1.2	1.5	1.8	1.0		
肝	관측값	1	2	1	4	1	0	0	1	0	1	11	2.7
	기대값	2.8	1.1	0.4	1.0	1.7	0.4	0.8	0.8	1.2	0.6		

32) 해당 신체어휘 관용어구에서 나타난 정서표현의 실제 용례수

33) 해당 신체어휘 관용어구의 합계 × 해당 정서표현의 합계 ÷ 신체어휘 관용어구의 총합계

〈表26〉 日本語身體語彙慣用語句와情緒表現통계표

구분		기쁨	슬픔	두려움	놀람	분노	증오	부끄러움	괴로움	흥미	기타	계	비율
腰	관측값	2	0	0	3	0	0	0	0	0	2	7	1.7
	기대값	1.7	0.7	0.2	0.6	1.1	0.3	0.5	0.5	0.7	0.4		
臍	관측값	5	0	0	0	1	0	0	0	0	0	6	1.5
	기대값	1.5	0.6	0.2	0.5	0.9	0.2	0.4	1.8	0.6	0.4		
腸	관측값	1	2	0	0	2	0	0	0	0	0	5	1.2
	기대값	1.3	0.5	0.2	0.4	0.8	0.2	0.4	0.4	0.5	0.3		
肩	관측값	11	0	2	0	1	0	1	1	1	2	19	4.6
	기대값	4.8	1.9	0.7	1.7	2.9	0.8	1.4	1.5	2.0	1.2		
足	관측값	2	4	1	1	0	0	0	1	0	1	10	2.4
	기대값	2.5	1.0	0.4	0.9	1.5	0.4	0.7	0.8	1.0	0.6		
手	관측값	3	2	0	1	0	0	0	2	0	0	8	2.0
	기대값	2.0	0.8	0.3	0.7	1.2	0.3	0.6	0.6	0.8	0.5		
尻	관측값	0	1	0	0	1	0	0	0	0	3	5	1.2
	기대값	1.3	0.5	0.2	0.4	0.8	0.2	0.4	0.4	0.5	0.3		
身	관측값	2	2	4	1	1	0	1	6	2	0	19	4.6
	기대값	4.8	1.9	0.7	1.7	2.9	0.8	1.4	1.5	2.0	1.2		
血	관측값	4	2	0	3	4	1	0	3	1	0	18	4.4
	기대값	4.5	1.8	0.6	1.6	2.8	0.7	1.3	1.4	1.9	1.1		
骨	관측값	4	0	0	0	0	0	0	3	0	0	7	1.7
	기대값	1.7	0.7	0.2	0.6	1.1	0.3	0.5	0.5	0.7	0.4		
합계		103	42	15	37	63	17	30	33	43	25	408	
비율		25.2	10.3	3.7	9.1	15.4	4.2	7.4	8.1	10.5	6.1		

日本語 身體語彙 慣用語句 전체 408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체부위는 韓國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1.0%에 해당하는 86항목의 「日」이다. 「日は口ほどのを言う」라는 표현을 입증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日」에서 나타나는 情緒表現은 관측결과로 보면 「흥미」「기쁨」「놀람」순으로 나타났지만 기댓값과 대비하여 보면 「흥미」「증오」「놀람」의 순으로 나타나 「눈」이 「기쁨」보다는 오히려 「증오」의 정서표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日」다음에 정서표현 관용어구의 수가 많이 나타나는 신체부위 역시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胸」로써, 전체의 11.8%를 차지하는 48항목이다. 「胸」에서 나타나는 정서표현의 관측값은 「기쁨」「슬픔」「괴로움」순으로 나타나 기댓값과 대비하였을 때와 같은 순서를 나타냈다

그외에 「顔(35항목)」- 「鼻(28항목)」- 「肩、身(19항목)」- 「血(18항목)」- 「頭・腹(17항목)」- 「耳(16항목)」- 「口(13항목)」- 「首、肝(11항목)」- 「足(10항목)」- 「肩(9항목)」 「手(8항목)」- 「歯、腰(7항목)」- 「顎、臍、骨(6항목)」- 「腸(5항목)」의 순으로 나타났다.

〈表27〉 韓國語 身體語彙 慣用語句와 情緒表現 통계표

구분		기쁨	슬픔	두려움	놀람	분노	증오	부끄러움	괴로움	흥미	기타	계	비율
눈	관측값	12	6	1	9	8	11	2	0	17	8	74	19.9
	기대값	15.3	10.5	2.9	5.4	8.5	3.7	6.2	9.1	6.5	5.9		
얼굴	관측값	5	2	4	4	2	0	18	1	0	0	36	9.7
	기대값	7.2	5.1	1.4	2.6	4.1	1.8	3.0	4.4	3.2	2.9		
코	관측값	8	1	0	0	1	1	1	0	1	5	18	4.9
	기대값	3.6	2.5	0.7	1.3	2.1	0.9	1.5	2.2	1.6	1.4		
머리	관측값	1	0	0	1	3	0	2	9	3	4	23	6.2
	기대값	4.6	3.2	0.9	1.6	2.6	1.2	1.9	2.8	2.0	1.8		
귀	관측값	1	0	0	0	5	1	1	0	6	1	15	4.0
	기대값	3.0	2.1	0.6	1.1	1.7	0.7	1.2	1.8	1.3	1.2		
입	관측값	5	0	1	2	4	3	1	0	3	0	19	5.1
	기대값	3.8	2.7	0.7	1.3	2.2	0.9	1.6	2.3	1.7	1.5		
고개·목	관측값	2	6	1	0	3	0	1	0	0	2	15	4.0
	기대값	3.0	2.1	0.6	1.1	1.7	0.7	1.2	1.8	1.3	1.2		
눈썹	관측값	0	0	0	0	0	0	0	0	0	0	0	0.0
	기대값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이	관측값	0	0	1	0	2	0	0	1	0	0	4	1.0
	기대값	0.8	0.5	0.1	0.3	0.4	0.2	0.3	0.5	0.3	0.3		
턱	관측값	0	0	0	0	0	0	0	0	0	0	0	0.0
	기대값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가슴	관측값	19	15	1	3	2	0	0	11	0	0	51	13.7
	기대값	10.2	7.3	2.0	3.7	5.9	2.6	4.2	6.3	4.5	4.1		
배	관측값	0	0	0	0	1	1	0	0	1	2	5	1.3
	기대값	1.0	0.7	0.2	0.3	0.6	0.2	0.4	0.6	0.4	0.4		
간·담	관측값	1	3	2	4	2	0	0	0	0	0	12	3.2
	기대값	2.4	1.7	0.5	0.8	1.4	0.6	1.0	1.5	1.1	0.9		
허리	관측값	2	0	0	0	0	0	0	3	0	1	6	1.6
	기대값	1.2	0.8	0.2	0.4	0.7	0.3	0.5	0.7	0.5	0.5		
배꼽	관측값	4	0	0	0	0	0	0	0	0	0	4	1.1
	기대값	0.8	0.5	0.1	0.3	0.4	0.2	0.3	0.5	0.3	0.3		
애·뺨	관측값	0	10	0	0	5	0	0	1	0	0	16	4.3
	기대값	3.2	2.3	0.6	1.1	1.8	0.8	1.3	1.9	1.4	1.3		
어깨	관측값	5	1	1	0	1	0	1	1	0	3	13	3.5
	기대값	2.6	1.8	0.5	0.9	1.5	0.6	1.1	1.6	1.1	1.0		
발	관측값	3	3	0	0	0	0	1	5	0	2	14	3.8
	기대값	2.8	2.0	0.5	1.0	1.6	0.7	1.2	1.7	1.2	1.1		

〈表27〉 韓國語 身體語彙 慣用語句와 情緒表現 통계표

구분		기쁨	슬픔	두려움	놀람	분노	증오	부끄러움	괴로움	흥미	기타	계	비율
손	관측값	2	1	0	0	1	0	2	0	1	0	7	1.9
	기대값	1.4	1.0	0.3	0.5	0.8	0.3	0.6	0.8	0.6	0.5		
영녕이	관측값	0	0	0	0	0	0	0	0	0	1	1	0.3
	기대값	0.2	0.1	0.0	0.1	0.1	0.1	0.1	0.1	0.1	0.1		
몸	관측값	1	1	3	1	1	0	1	3	0	1	12	3.2
	기대값	2.4	1.7	0.5	0.8	1.4	0.6	1.0	1.5	1.1	0.9		
피	관측값	3	4	0	3	2	1	0	5	1	0	19	5.1
	기대값	3.8	2.7	0.7	1.3	2.2	0.9	1.6	2.3	1.7	1.5		
뼈	관측값	1	0	0	0	0	1	0	6	0	0	8	2.2
	기대값	1.6	1.1	0.3	0.6	0.9	0.4	0.6	0.9	0.7	0.6		
합계		75	53	15	27	43	19	31	46	33	30	372	
비율		20.1	14.2	4.1	7.3	11.5	5.1	8.4	12.3	8.9	8.1		

韓國語 身體語彙 慣用語句 전체 372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관용어구 수를 보이는 신체부위는 74항목의 「눈」으로 19.9%에 해당한다. 이것은 시각기관인 「눈」이 감정표현 관용어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눈」에서 나타나는 정서표현의 관측결과로 보면 「흥미」「기쁨」「증오」의 순이지만 기댓값과 대비하여 보면 「흥미」「증오」「놀람」의 순으로 나타나 일본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쁨」보다는 「증오」의 정서영역이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한편 「괴로움」의 정서는 「눈」에서는 유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정서표현이었다.

「눈」다음으로 「가슴」을 매개로 한 정서표현 慣用語句가 51항목으로 전체항목 중 13.7%에 해당한다. 이는 가슴속에는 심장이 있고, 인간의 감정은 심장의 감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슴을 매개로한 정서표현이 많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가슴」에서 나타나는 정서표현의 관측값은 일본어의 경우와 같은 「기쁨」「슬픔」「괴로움」순으로 나타, 기댓값과 대비하였을 때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외에 「얼굴」을 매개로한 정서표현 관용어구가 36항목, 「머리」(23항목), 「입,피」(19항목), 「코」(18항목), 「귀,고개·목·모가지」(15항목), 「발」(14항목), 「몸,간·담」(12항목), 「어깨」(13항목), 「뼈」(8항목)의 순이다.

5.2. 정서표현별 비교

〈表28〉 정서표현 분류에 의한 근원신체명³⁴⁾표

정서표현	日 本 語		韓 國 語	
	신체어휘관용어구 갯수	근원신체명	신체어휘관용어구 갯수	근원신체명
기쁨	103	胸(19)	75	가슴(19)
슬픔	42	胸(10)	53	가슴(15)
두려움	15	身(4)	15	얼굴(4)
놀람	37	目(14)	27	눈(9)
분노	63	目(12)	43	눈(8)
증오	17	目(8)	19	눈(11)
부끄러움	30	顔(19)	31	얼굴(18)
괴로움	33	胸(8)	46	가슴(11)
흥미	43	目(24)	33	눈(17)
기타	25	鼻(6)	30	눈(8)
합계	408		372	

〈日本語의 경우〉

「기쁨」의 근원이 되는 신체부위는 「胸」이다. 103항목중 19항목으로 나타났다. 「기쁨」의 정서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 신체부위는 「目」「肩」「鼻」「腹」「顎」「顔」순이다.

「슬픔」의 근원이 되는 신체부위는 「기쁨」의 정서표현과 마찬가지로 「胸」이다. 42항목중 10항목으로 23.8%를 차지한다. 그 외에 「首」「目」「足」「眉」「手」「顔」「肝」「身」「血」등에서도 「슬픔」의 정서표현이 나타났다.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신체부위는 「身」으로 15항목중 4항목이 나타났다. 그 외에 「顔」에서 3항목, 「肩」에서 2항목 「目」「鼻」「首」「齒」「肝」「足」에서 1항목씩 나타났다.

「놀람」의 근원이 되는 신체부위는 「目」로 37항목중 14개항목으로 37.8%를 차지해 기댓값(7.8)을 훨씬 넘는 용례수를 보였다.. 그 외에 「肝」「腰」「顔」「血」에서 각각 3항목씩 나타났다.

「분노」의 근원이 되는 신체부위 역시 「놀람」의 정서표현과 동일하게 「目」

34) 해당 정서표현중 가장 많은 용례수를 가지는 신체어휘명임. 괄호안의 수치는 용례수를 나타냄.

이다. 전체 63항목중 12항목을 차지했지만 기댓값(13.3)에는 미달되는 수치였다.. 그외 「口」 「耳」 「胸」 「腹」 「血」 「頭」 「齒」 「首」 「肩」 「腸」 에서도 「 분노」의 정서표현을 볼수 있었다.

「증오」의 근원이 되는 신체부위는 「日」이다 전체 17항목중 8항목인 47.1%를 차지했다. 그리고 「胸」 「腹」 「鼻」 「肩」 「齒」 「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체부위에서 「증오」에 관한 정서 표현이 발견되지 않았다.

「부끄러움」의 근원이 되는 신체부위는 「顔」이다 전체 30항목중 19항목으로 기댓값(6.3)을 넘어서 정서표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수 있었다. 그 외에 「日」 「鼻」 「頭」 「耳」에서 2항목 「口」 「肩」 「身」에서 각각 1항목씩 볼수 있었다.

「괴로움」의근원이 되는 신체부위는 「胸」로 전체 33항목중 8항목을 차지하였고, 그밖에 「身」 「頭」 「血」 「骨」 「手」 「日」 「頭」순으로 나타났다.

「흥미」의 근원이 되는 신체부위는 「日」이다 전체 43항목중 24항목으로 기댓값(9.1),보다 거의 3배 가까운 용례수를 나타냈다. 그 외 「耳」 「鼻」 「頭」 「身」 등에서도 흥미의 정서표현을 볼수 있었다.

「기타(존경, 경멸, 긴장, 당황, 질투, 실망, 무시, 미움)」의 근원이 되는 신체부위는 「鼻」이고, 「日」 「尻」 「腰」 「口」 「頭」 「肝」 「足」에서 관련된 정서표현을 볼 수 있었다.

〈韓國語의 경우〉

「기쁨」의 근원이 되는 신체부위는 日本語의 「기쁨」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슴」이다 「가슴」을 사용한 관용어구 수는 19항목으로 「기쁨」을 나타내는 전체관용어구의 25.3%를 차지했다 그 외에 「기쁨」의 표현은 조사대상 신체부위 23개항목중 「눈썹」 「이」 「턱」 「배」 「애·뺨·애간장」 「엉덩이」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모두 발견되었다.

「슬픔」이 근원이 되는 신체부위는 「기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슴」이다. 전체 53항목중 15항목으로 28.3%를 차지해, 「눈」보다 「가슴」이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밖에 「애·뺨·애간장」 「고개·목·모가지」 「눈」 등에서 많은 용례를 보였다.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신체부위는 「얼굴」로 전체 15항목중 4항목을 차지했다.

「놀람」의 근원이 되는 신체부위는 「눈」이다 전체 27항목중 9항목으로 기댓값(5.4)보다 많은 용례수를 나타냈다.. 그 외 「간·담」 「얼굴」 「가슴」 「피」 「입」 등에서도 놀람의 정서표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노」의 근원이 되는 신체부위는 총 42항목중 8항목을 차지하는 「눈」이다 이외 「애·벨·애간장」 「귀」 「입」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의 근원이 되는 신체부위는 「분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눈」이다 전체 19항목중 11항목으로 기댓값(3.7)보다 3배에 가까운 용례수를 보였다. 조사대상 신체부위 총 23개중 「코」 「귀」 「입」 「배」 「피」 「뼈」 외의 신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끄러움」의 근원이 되는 신체부위는 「얼굴」이다 총 31항목중 58.1%를 차지해 기댓값(눈6.2)보다 많은 정서표현을 나타냄을 알수 있었다.. 그 외 「손」 「눈」 「머리」에서 2항목씩 「어깨」 「발」 「몸」 「코」 「귀」 「입」 「고개·목·모가지」에서 1항목씩 나타났다.

「괴로움」의 근원이 되는 신체부위는 「가슴」으로 전체 46항목중 11항목이었고, 그 다음 「머리」에서도 9항목이 나타났다. 이외 「뼈」 「피」 「발」 「허리」 「몸」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흥미」의 근원이 되는 신체부위는 「눈」으로 전체 33항목중 17항목으로 51.5%를 차지했으며 「귀」에서 6항목 「머리」 「입」 「코」 「배」 「손」 「피」에서도 「흥미」의 정서표현이 나타났다

「기타((존경, 경멸, 긴장, 당황, 질투, 실망, 무시, 미움)」의 근원이 되는 신체부위는 「눈」으로 30항목중 8항목을 차지했다. 그 외에 「코」 「머리」 「어깨」 「고개·목」 「배」 「발」 순으로 「기타」와 관련된 정서표현을 볼 수 있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日本語 학습에 있어서 좀 더 나은 관용어구의 理解를 돕기 위해 日・韓 양국어에 있어서의 관용어구의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신체어휘 관용어구의 신체어휘별로 나타나는 정서의 영역과 각각의 정서표현에 이용된 신체어휘 관용어구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통 日・韓 양국어는 어순이 같고 비슷한 영역에 위치하며, 같은 한자문화권이 라는 점에서 그 유사성이 강조되기 싶지만 양국간에 儼存하는 전통과 발상의 차이에 따라 생겨나고, 표현 방법의 차이와 어휘가 가지는 의미의 차이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연구에서 얻은 신체부위별, 정서표현별 비교결과,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게 되었다.

1. 신체부위별 일・한 비교

日本語에서, 정서표현이 나타나는 신체어휘는 「目」-「胸」-「顔」-「鼻」-「肩、身」순으로 나타났다. 신체부위별 용례수는 「頭部,228개(55.9%)」-「胴体部, 94개(23.1%)」-「全身部,44개(10.7%)」-「四肢部,42개(10.2%)」 순이다.

韓國語에서 가장 정서표현이 나타나는 신체어휘는 「눈」-「가슴」-「얼굴・체면・뺨」-「머리」-「입,피」-순으로 나타나 1~3위까지는 일본어의 경우와 동일하였으나 그 이하는 순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일본어와 달리 「눈썹」과 「턱」에서는 그 용례를 찾아볼수가 없었다. 신체부위별 용례수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頭部,204개(54.8%)」-「胴体部,94개(25.2%)」-「全身部,39개(10.5%)」-「四肢部,35개(9.5%)」 순이다.

2. 정서표현별 일・한 비교

일・한 양국어에서 정서표현의 근원이 되는 신체부위중 공통되는 신체부위로는 「기쁨」 「슬픔」 「괴로움」의 「가슴/胸」과 「놀람」 「분노」 「증오」의 「눈/目」, 그리고 「부끄러움」의 「얼굴/顔」과 「흥미」의 「눈/目」이다. 일・한 양국어에서 다른점을 보이는 신체부위로는 「두려움」의 정서표현의 근원이 韓國語에서는 「얼굴」, 日本語에서는 「身」으로 나타났다. 관측결과로 보면 「目」의 경우 「흥미」 「기쁨」 「놀람」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기뻛값과 대비하여 보면 「흥미」 「증오」 「놀람」의 순으로 나타나 이는 「目」이 「기쁨」의 정서표현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한국어에서도 「눈」의 경우 「흥미」 「기쁨」 「증오」순으로 나타나 일본의 경우와 순서는 다르지만 기뻛값과 대

비하면 양국 모두 「흥미」「증오」「놀람」의 순서로 나타나서 「기쁨」은 관측도수는 높으나 예상보다는 작은 용례수를 나타냄을 알수 있었다.이에 비해 「가슴/胸」은 일·한 모두 관측값이 기댓값과 대비했을 때 안정된 양상을 나타내었다.

정서표현별 비교 결과로는 日本語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정서표현은 「기쁨」- 「분노」- 「흥미」- 「슬픔」- 「놀람」 순이고, 韓國語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정서표현은 「기쁨」- 「슬픔」- 「괴로움」- 「분노」- 「흥미」 순이었다.

3.일·한 身體語彙 관용어구의 정서표현의 共通点 및 相違点

《共通点》

일·한 신체어휘 관용어구의 정서표현이 갖는 공통점으로써는 「얼굴/顔」의 경우 「부끄러움」을 느낄때의 양상이 얼굴색이 붉어진다던가, 얼굴에 검은 무언가를 바름으로서 체면에 손상을 가져옴을 표현하는점이다. 「肩/어깨」에서는 어깨의 경중에 따라 어떤 책임이나 부담의 유무를 나타내고, 어깨를 펴고 올리는 행동은 자신감을 어깨를 움츠리고 늘어뜨리는 행동은 두려움이나 실망의 정서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身/몸」에서 「身」의 유의어에 「身体」「からだ」등이 있으나 이를 사용한 용례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한국어에서도 「몸」의 유의어인 「신체」등을 이용한 정서표현은 나타나지 않음을 알수 있었다.

《相違点》

「턱」에서는 정서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顎」의 「기쁨」의 정서에 음식의 맛이 좋거나, 몹시 웃거나, 거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비유하였다. 한국어의 「배꼽을 잡다」「배꼽을 쥐다」가 일본어에서는 「腹をかかえる」「腹の皮をよる」처럼 「腹」를 이용해 표현하고 있었고, 「腸」에서 「슬픔」과 「분노」의 정서표현이 다 나타나는 반면, 「애·앓」의 경우는 「슬픔」의 정서표현에는 「애」가, 「분노」의 정서표현에는 「앓」 각각 나뉘어져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어깨춤을 추다」는 신명남을 동반한 「기쁨」의 정서표현으로 한국어에만 있는 표현이었다.

이상과 같이 일·한 양국어의 신체어휘 관용어구가 나타내는 정서표현을 신체어휘별로 대응시키고, 비교해 보았다. 신체어휘를 사용한 관용표현은 단순히 고유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의미보다 확대되거나 또는 그 의미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용법으로 사용되어 지는 등 다양한 비유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는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체내기관과 신체부위에서 파생되는 분비물, 그리고 추상적, 정신적인부분까지 포함하여 정서표현에 관계하는 전반적인 관용어구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다.

【참고문헌】

- 高淳治(1983), 「日本語に於ける慣用語句管見」, 論文集, 關東大11
- 金桂連(1991), 「日・韓兩國語における胴体部の身体語彙慣用語の対照考察」,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김유진(2002), 「최신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김정택譯(1993), 『인간행동의 심리학』 (A.V.Petrosky, et.al., *Psychology*, 1983), 사상사
- 金宗澤(1971), 「이디엄研究」, 語文學 25號, 韓國語文學會
- 김호용(1996), 「한·일 관용구에 관한 비교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沈在箕(1982), 『國語語彙論』, 集文堂
- 柳椿姬(2000), 「韓日兩言語における慣用語の特徴比較」 『日本學報44輯』, 韓日本学会
- 이경자(1999), 『우리말 신체어 형성』, 충남대출판부
- 林八龍(1988), 「日・韓身体語彙慣用語の比較對照のための基礎研究」, 『韓國外國語大學校論文集』, 한국외국어대학교
- _____ (1995), 「日・韓身体語彙慣用語の對照考察Ⅱ」, 『韓國外國語大學校論文集』 한국외국어대학교
- _____ (1997), 「日・韓身體語彙慣用語の對照考察Ⅰ-頭部を中心として」, 『韓國外國語大學校論文集』, 한국외국어대학교
- _____ (1999), 「日・韓身体語彙慣用語의 對象考察Ⅲ」, 『韓國外國語大學校論文集』 한국외국어대학교
- 장세경外(1994), 「國語 慣用語에 관한 研究」, 『한국학논집』, 한국학연구소
- 최정훈(1993), 『인간행동의 이해』, 범문사
- 許 錫(1989), 「韓國語 慣用語 研究」, 『인하대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인하대학교
- 홍대식譯(1990), 『심리학개론』 (E.R Hilgard et.al., *Introduction to Psychology*), 養英閣
- 石野博司(1989), 「身体に関する慣用表現」, 『日本語教育3号』, 明治書院
- 中村明(1985), 「慣用語と比喩表現」, 『日本語学Vol.4-1』, 明治書院
- 長谷川潔(1974), 『日本語と英語—その発想と表現』, サイマル出版会
- 星野命(1976), 『身体語彙による表現』, 大修館書店
- 宮地裕 (1982), 『慣用語の意味と用法』, 明治書院
- 森田良行(1971), 「慣用的な言い方」, 『講座日本語教育第2分冊』, 早稲田大学語学教育研究所
- 横山辰二(1975), 「国語の慣用語」, 『文化庁国語シリーズⅧ語源・慣用語』, 教育出版
- 和田節(1969), 「からだのことは考」, 『日本語教育9月号』, 思想の科学社

《辭典類》

- 국어국문학회(2000), 『국어대사전』, 民衆書林
金學憲(1996), 『日本語 慣用句 辭典』, 民衆書林
박영준 · 최경봉(1997), 『관용어 사전』, 태학사
安田吉實 · 孫洛範 編著(1996), 『에센스 日韓辭典』, 民衆書林
이희승(1994), 『국어대사전』, 民衆書林
白石大二(1987), 『国語慣用句大辞典』, 東京堂
国語学会(1981), 『国語学大辞典』, 東京堂
日本大辞典刊行会(1990), 『日本国語大辞典』, 小学館

〈별표1〉 目/눈

I 유형 : 日・韓 慣用語句의 情緒表現의 意味가 同一하거나 비슷한 表現

区分	日本語	韓国語
기쁨	目がかがやく	눈이 반짝이다
	目頭があつくなる	눈시울이 뜨거워지다
	目くされ金	눈먼 돈
	目にいる	눈에 들다(눈에 차다)
	目に入れてもいたくな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目のくすり	눈요기
	目の正月	눈요기
	目のほよう	눈요기
	目をかがやかす	눈을 반짝거리다
	目をなぐさめる	눈요기를 하다
	目をほそくする	눈을 가늘게 뜨다
	目からうろこが落ちる	눈이 확 트이다
	目がたかい	눈이 높다
슬픔	目がさえる	눈이 말뚝말뚝하다
	目をうるませる	눈물을 글썽이다
	目をねむる	눈이 멀다
	目がしらがるむ	눈시울을 적시다
	目がしらをぬらす	눈시울을 적시다
두려움	目をそばめる	겉눈질로 보다
놀람	目の前がくらくなる	눈앞이 캄캄해지다
	目もあてられない	눈뜨고 볼수가 없다.
	目をうたがう	눈을 의심하다
	目を大きくする	눈을 휘둥그렇게 뜨다
	目を白黒させる	눈을 희번덕거리다
	目を皿にする	눈이 등잔만해지다
	目をまるくする	눈을 둥그렇게 뜨다
	目をみはる	눈이 휘둥그래지다
	目をばちくりさせる	눈을 깜빡이다
	目くらをたてる	눈알을 부라리다
분노	目の色をかえる	눈에 쌍심지를 켜다
	目をいからす	도끼눈을 뜨다
	目を三角にする	눈에 모를 세우다
	目をつりあげる	눈을 치켜뜨다
	目尻をつりあげる	눈초리를 치켜뜨다
	目をむく	눈을 부릅뜨다
	目を決する	눈을 부릅뜨다
	目かどがたてる	눈에 쌍심지를 켜다

区分	日本語	韓国語
증오	目にあまる	눈꼴 사납다(눈꼴이 시다, 눈꼴이 쫄리다)
	目にさわる	눈에 거슬리다
	目の上のこぶ	눈에 가시
	目のかたきにする	눈에 가시로 여기다
	尻目にかける	눈을 흘기다
	尻目をつかう	눈을 흘기다
부끄러움	目をそばだてる	눈을 모로 뜨고 보다
	目をふせる	눈을 아래로 떨구다
흥미	目がとどく	눈길이 닿다
	目がゆく	눈이 가다
	目くしをつける	눈여겨 보다
	目にかける	눈여겨 보다
	目にとどめる	눈여겨 보다
	目をいれる	눈여겨 보아주다
	目をそそく	눈길을 쏘다
	目をつける	눈여겨 보다
	目をとどめる	눈길을 멈추다
	目をとめる	눈길을 멈추다
	目はなせない	눈을 못떼다
	目をひく	눈을 끌다
	目をむける	눈길을 돌리다
	目がくらむ	눈이 어두워지다
	目がくれる	눈이 어두워지다
	目がつく	눈이 가다
기타	目をひからせる	눈을 번득이다

II 유형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日本語	備考
기쁨	目があう	잠을 잘자다
	目をほそめる	기쁘거나, 귀여운 것을 보고, 웃음짓는모양
놀람	目がさめる	깜짝 놀라다
	目がまう	놀라 자빠지다
	目がまわる	놀라 자빠지다
	目もあやに	기가차서(어이가 없어하는 모양)
	目をさます	깜짝놀라다
분노	目口はだかる	어처구니 없다
	目にしむ	싫증나다

区分	日本語	備考
	目むいて鼻むいておこる	눈을 부라리고 몹시 화를 내다
	目がすわる	몹시 노하다
증오	白い目でみる	냉담한 혹은 증오에 찬 눈으로 보다
괴로움	目にあう	괴로운 일을 겪다
흥미	目がない	맥을 못추다(몹시 좋아하다)
	目じりがさがる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쓴다
	目でころす	추파를 던지다
	目先をかえる	취향을 바꾸다
	目のどく	보면 욕심이 나는 물건
	目はそらに	마음은 콩밭에
	目をすます	주의해서 보다
	ひとみをこらす	툼어지게 바라보다
기타	目をそむける	외면하다
	目をそらす	외면하다
	目をつぶる	모른체하다

Ⅲ유형 :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韓國語	備考
기쁨	눈이 맞다	二人の心が通じ合う
슬픔	눈물이 앞을 가리다	涙が前をかくすほど悲しい
	눈물이 펴 돌다	涙がでそうに悲しい
놀람	눈이 돌다	驚いたり、戸惑ったりする
	눈이 돌아가다	驚いて激憤する
분노	눈에서 불이 나다	感情が激しくなる
증오	눈살을 찌푸리다	望ましくに不愉快に思う
	눈총을 주다	憎んでいる心を伝える
	눈허리 시다(눈이 시다)	行動が醜い
흥미	눈이 뒤집히다	理性を失って、むやみに振る舞う。
	눈이 멀다	何かに熱中して理性を失う
	눈이 빠지도록	たいへん長たらく待つ様子
	눈이 번쩍이다	関心をもつようになる
	눈이 벌겋다	利益をもとめる
기타	눈길이 따갑다	批判的な目で注目して見る
	눈 밖에 나다	不愉快な態度で憎まれるようになる
	눈이 빠다	物を充分に見極めずに、選り、損なったこと
	눈총을 받다	人にひどく憎まれるさま
	한눈을 팔다	横道にそれて、他のことに熱中になる
	눈을 내리깔다	輕蔑する
	눈을 돌리다	知らないふりをする

〈별표2〉 顔 / 얼굴 · चेम् · 낫

I 유형 : 日・韓 慣用語句의 情緒表現의 意味가 同一하거나 비슷한 表現

区分	日本語	韓国語
기쁨	顔がたつ	체면이 서다
	顔をたてる	체면을 세우다
	面目をほどこす	면목을 세우다
슬픔	顔がくもる	얼굴이 어두워지다
	顔をくもらす	얼굴에 어두운 표정을 짓다
두려움	顔が青くなる	얼굴이 새파래지다
	顔が青ざめる	얼굴이 새파래지다
	顔が真っ青になる	얼굴이 새파래지다
놀람	顔が変する	얼굴빛이 변하다
	顔をしかめる	얼굴을 찡그리다
	顔がこわばる	얼굴이 굳어지다
분노	顔を赤くする	얼굴을 붉히다
부끄러움	顔があかい	얼굴이 벌겋다
	顔があわせられない	얼굴을 대할 수 없다
	顔がだせな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顔がよこれる	얼굴을 더럽히다
	顔から火がでる	얼굴이 화끈거리다
	顔にかかわる	체면에 관계되다
	顔にどろをぬる	얼굴에 먹칠하다(얼굴에 똥칠을 하다)
	顔にもみじをちらす	얼굴이 홍당무가 되다
	顔むけができない	면목이 없다
	顔をあかくする	얼굴을 붉히다
	顔をつぶす	체면을 잃다
	面の皮をはぐ	얼굴을 깎다
	面びがもえる	얼굴이 뜨겁다
	面皮をかく	면목을 잃다
	どのつらさげて	무슨 낯짝으로
	顔がかげず	얼굴에 그늘이 지다

II 유형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日本語	備考
기쁨	大きな顔をする	잘난체 하다
분노	顔をふくらす	화를 내다
부끄러움	顔まける	부끄럽게 생각하다
	顔がさす	꼴사납게 되다
	顔をそむける	외면하다
기타	顔をふる	본체만체하다

Ⅲ 유형 :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韓國語	備考
기쁨	얼굴이 펴지다	悩みなどがなくなる
	얼굴이 개다	悩みなどがなくなる
두려움	얼굴이 하얘지다	何かが怖くて顔の色が白くかわる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하다	侮辱などで怒っている様子
	얼굴이 노래지다	怖くて顔の色が黄色くかわる
놀람	얼굴이 노래지다	びっくりして顔のいろが黄色くかわる
분노	얼굴을 찌푸리다	いやがったり腹がたったりしてしかめっ面をする
부끄러움	얼굴이 간지럽다	たいへんはずかしい

〈별표3〉 鼻/코

1 유형 : 日・韓 慣用語句의 情緒表現의 意味가 同一하거나 비슷한 表現

区分	日本語	韓國語
기쁨	鼻いさがあらい	코대가 세다
	鼻がたかい	코대가 높다
	鼻っぱしらがつよい	코대가 세다
	鼻をうごめかす	코를 벌렁거리다
	鼻笛をふく	코노래를 부른다
슬픔	鼻をすする	코를 훌쩍거리다
증오	鼻もちがならない	눈뜨고 못봐 주겠다.
부끄러움	鼻がへこむ	코가 납작하게 되다
기다	鼻でわらう	코웃음 치다
	鼻さきでわらう	코웃음 치다
	鼻であしらう	코방귀 꺾다
	鼻もうごかない	코방귀도 안 나오다
	鼻もひっかけない	코방귀도 안 나오다

II 유형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日本語	備考
기쁨	鼻の先をこすって	좀 생각을 하거나, 거만스런 표정을 짓는 모양
	鼻をたかくする	거만을 떨다
	鼻をふくらめる	잘난체하다
	鼻をそらす	잘난체하다
두려움	鼻息をうかがう	눈치를 살피다
놀람	鼻をあかす	깜짝 놀라게 하다
분노	鼻息をならす	숨소리가 거칠다
	鼻につく	싫증나다
	鼻をいからす	몹시 화를 내다(식식거리다)
	鼻をふさぐ	듣기 싫다는 행동을 한다는 비유
부끄러움	鼻をひく	창피를 주다
흥미	鼻毛をぬく	남을 속여 혼자만 이익을 보다
	鼻毛をのばす	여색에 빠지다
	鼻のしたがり	여자에게 빠지기 쉽다
기타	鼻のさきでいう	겉으로만 흥흥하면서 말하다

III 유형 : 韓国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韓国語	備考
기쁨	콧날이 시큰해지다	涙ぐましいことに感動する
	콧끝이 찡하다	感激する
	코허리가 시다	感動する
	코가 우뚝하다	高慢な口をきく
분노	코침을 주다	人を怒らせる
흥미	코를 박다	何かに夢中になる
기타	코를 빠뜨리다	たいへん失望する
	코가 땅에 닿다	丁寧な様子

〈별표4〉 頭/머리

I 유형 : H・韓 慣用語句의 情緒表現의 意味가 同一하거나 비슷한 表現

区分	日本語	韓国語
분노	頭に湯気をたてる	머리에서 김이 나다
	頭に血があがる	머리에서 피가 올라오다
	頭をふる	머리를 흔들다
부끄러움	頭があがらない	머리를 못 들다
	頭をかく	머리를 굽다
괴로움	頭がいたい	머리(머리살)가 아프다
	頭がおもい	머리가 무겁다
	頭をいためる	머리(골치)를 썩이다
	頭をかかえる	머리를 싸매다
	頭をなやます	골머리를 앓다
흥미	頭にある	머릿속에 자리잡다
	頭をはなれない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기타	頭がさがる	머리가 수그러지다
	頭をさげる	머리를 굽히다

II 유형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日本語	備考
놀람	頭から水をあびたよう	냉수를 끼얹은 듯 깜짝 놀람
분노	頭にくる	화가 치밀다
흥미	頭をはねる	타인의 이익을 자기의 것으로 함

III 유형 : 韓国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韓国語	備考
기쁨	머리가 가볍다	負擔感が泣くなり、気分が爽快である
놀람	머리끝이 쭈뼛쭈뼛하다	びっくりして髪が立つように様子
괴로움	머리가 복잡하다	悩みがたくさんある
	머리가 빠지다	苦しい状態
	머리가 세다	苦しい状態
	머리를 쥐어짜다	大変苦勞して工夫したり、夢中になって考える
흥미	머리를 놀이다	何かに関心をもつ
기타	머리를 흔들다	強く拒否する様子
	머리를 조아리다	丁寧な態度

〈별표5〉 耳/귀

I 유형 : 日・韓 慣用語句의 情緒表現의 意味가 同一하거나 비슷한 表現

区分	日本語	韓国語
분노	耳にさわる	귀에 거슬리다
	耳がいたい	귀가 아프다
	耳にさからう	귀에 거슬리다
	耳にたこができる	귀에 못이 박히다
부끄러움	耳のつけ根まで赤くなる	귀밑이 빨개지다
흥미	耳にとめる	귀담아 듣다
	耳をかす	귀를 기울여 듣다
	耳をかたむける	귀를 기울이다
	耳をすます	귀를 기울이다
	耳をたてる	귀를 세우다
	耳をとどめる	귀를 기울이다

II 유형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日本語	備考
기쁨	耳の正月	재미있는 이야기나, 신기한 소리를 듣고 몹시 즐거워하는 일
분노	耳につく	같은 소리를 여러번 들어서 시시해짐
	耳がかゆい	듣기 거부하다
괴로움	耳のいたい思いをする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쓰라린 경험을 하다
흥미	耳をあらう	잘듣기 위해 정신을 집중시킨다는 비유

III 유형 : 韓国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韓国語	備考
기쁨	귓전을 울리다	感動する
분노	귀가 따갑다	同じ話をききすぎて腹がたつ
증오	귀가 간지럽다	誰かが自分のうわさをするようであることの例え
흥미	귀가 번쩍 뜨이다	期待していないことや、また阿、突然のよい話に気がむく
	귀가 솔깃하다	注意して聞く
	귀가 쏠리다	神経に緊張してきく
기타	귀등으로 듣다	耳を傾けないできく

〈별표6〉 口/입

I 유형 : 日・韓 慣用語句의 情緒表現의 意味가 同一하거나 비슷한 表現

区分	日本語	韓国語
기쁨	口にあう	입에 맞다
놀람	口がふさがる 口をぽかんと開ける	입이 굳어 말이 안 나오다(어이가없다) 입을 딱 벌리다
분노	口が酸っぱくなる 口がわるい	입에서 신물이 나다 입이 절다
	口をとがらせる	입을 내밀다(입이 석자나 나오다)
부끄러움	口をおおう	입을 가리다

II 유형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日本語	備考
분노	口がうるさい 口がすぎる	말이 많고 시끄럽다 말이 지나치다
	憎まれ口をきく	사람들이 싫어할 소리를 하다
	口にまかせる	조심성 없이 함부로 지껄이다
기타	口をひきたる 口ばしがきいろい	남을 깔보다 미숙함을 비웃는말

III 유형 : 韓国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韓国語	備考
기쁨	입이 함박만하다 입이 찢어지다 입이 벌어지다	たいへん満足する様子 大変喜ぶ様子 びっくりして口が開ける
	입을 다물지 못하다	感嘆する
두려움	입이 무섭다	人のうわさにされることがいやだ
분노	입에 거품을 내다(거품을 물다)	興奮して言う
증오	입맛이 개운치 않다 입맛이 뚱다(입맛이 쓰다)	気分がむしゃくしゃする 気分がむしゃくしゃする
	입을 뻐죽이다	わるい気持を表す
흥미	입에 당기다(입맛이 당기다) 입맛을 다시다	何かに興味をもつようになる ほしいものを取りうとする
	입을 닦다	利益をこっそり手にいれて知らないふりをする

〈별표7〉 首/고개·목·모가지

I 유형 : 日・韓 慣用語句의 情緒表現의 意味가 同一하거나 비슷한 表現

区分	日本語	韓国語
기쁨	首を縦に振る	고개를 끄덕이다
	首をとる	목에 힘을 주다
슬픔	首を長くする	목을 길게 빼다(목 빠지게 기다리다)
	首がとぶ	목이 날아가다(해고되다)
	首があふない	목이 날아갈 것 같다(면직될 것 같다)
	首になる	모가지가 잘리다(해고되다)
두려움	首をすくめる	목을 움츠리다
분노	首を左右に振る	고개를 가로젓다
	首をふる	고개를 흔들다

II 유형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日本語	備考
슬픔	首がまわらない	빛이 많아서 움쭉못하다
흥미	首を突っ込む	사건파위에 관심을 가지다

III 유형 : 韓国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韓国語	備考
슬픔	목에 걸리다	氣になる
	목이 막히다	悲しんで喉がつまる
분노	목에 핏대를 세우다	興奮する
부끄러움	고개를 숙이다	おとなしくいる
기타	고개가 수그러지다	相手に尊敬する気持をあらわす
	고개를 돌리다	首をそむける

〈별표8〉 眉(眉毛)/눈썹

I 유형 : 日・韓 慣用語句의 情緒表現의 意味가 同一하거나 비슷한 表現

区分	日本語	韓国語
-	-	-

II 유형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日本語	備考
기쁨	眉をひらく	근심이 사라지고 기쁜 안색이 되다
	眉をよせる	만족스럽거나 우스꽝스러워 눈살을 모으다
슬픔	眉をおとす	근심, 낙담, 좌파위로 기분이 침울해지다
	眉をくもらす	근심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다
	眉をひそめる	수심에 잠기다
분노	眉にしわをよせる	눈살을 찌푸리다
	眉をあぐ	몹시 화를 내다
증오	眉をしかめる	불쾌해서 눈살을 찌푸리다
기타	眉あいの延た奴	눈뜨고도 못보는 바보

III 유형 :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韓國語	備考
-	-	-

〈별표9〉 齒/이

I 유형 : 日・韓 慣用語句의 情緒表現의 意味가 同一하거나 비슷한 表現

区分	日本語	韓國語
두려움	齒の根があわない	이가 덜덜 떨리다
분노	齒をかむ	이를 갈다
	齒ざしりをする	이를 갈다
괴로움	齒をくいしばる	이를 악물다

II 유형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日本語	備考
기쁨	齒にあう	입에 맞다
분노	齒をだす	노하다(화를 내다)
증오	齒が浮く	경솔한 언행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다

III 유형 :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韓國語	備考
분노	이가 떨리다	すごく憎らしい

〈별표10〉 顎/턱

I 유형 : 日・韓 慣用語句의 情緒表現의 意味가 同一하거나 비슷한 表現

区分	日本語	韓国語
-	-	-

II 유형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日本語	備考
기쁨	顎がおちる	음식의 맛이 몹시 좋다
	顎かはずれる	턱이 떨어져 나갈만큼 몹시 웃음
	顎をはずす	턱이 떨어져 나갈만큼 몹시 웃음
	顎をおとす	턱이 떨어질 듯이 웃다
	顎しゃくる	득의 만면하여 거만한 태도를 취함
	顎をなでる	득의 만면하여 거만한 태도를 취함

III 유형 : 韓国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韓国語	備考
-	-	-

〈별표11〉 胸/가슴

I 유형 : 日・韓 慣用語句의 情緒表現의 意味가 同一하거나 비슷한 表現

区分	日本語	韓国語
기쁨	胸がいっぱいになる	가슴이 벅차다,
	胸がおどる	가슴이 뛰다
	胸にあたる	가슴에 닿다
	胸にひびく	가슴에 울리다
	胸をなでおろす	가슴을 쓸어내리다
	胸をはすませる	가슴이 설레다
	胸をおどらせる	가슴이 설레다
	胸がすつとする	가슴이 후련하다
	胸がひらく	가슴이 후련하다
	胸のひまがあく	가슴이 트이다
	胸がすく	가슴이 후련하다
	胸をうたれる	가슴이 쫄하다
	胸をそらす	가슴을 뒤로 젖히다
	胸をたたく	가슴을 탁치다
	胸をときめかす	가슴을 두근거리다
	胸がたかなる	가슴이 두근거리다
	胸をはる	가슴을 펴다(독의만면하여 뽐내는모양)
	胸をふくらます	가슴이 부풀다, 가슴이 부풀어오르다
슬픔	胸をいためる	가슴이 아프다, 가슴을 앓다
	胸がふさがる	가슴이 답답하다
	胸がさける	가슴이 찢어지다
	胸がつぶれる	가슴이 미어지다, 쓰라리다
	胸がつかえる	가슴이 미어지다
	胸をしめつけられる	가슴이 미어지다
	胸がどきどきする	가슴이 두근 두근 하다
	胸が早鐘を打つ	가슴이 마구 두근거리다
놀람	胸がつぶれる	가슴이 섬뜩하다
	胸をひやす	가슴이 섬뜩하다
분노	胸がはりさける	가슴이 미어지다
	胸がわきかえる	가슴이 울컥하다
괴로움	胸がいたい	가슴이 아프다(몹시 괴롭다)
	胸がこがれる	가슴이 타다
	胸をこがす	가슴을 태우다

II 유형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日本語	備考
괴로움	胸をさする	가슴을 내리 쓰다듬다(고통을 참다)
	胸をいためる	가슴을 앓다
슬픔	胸にやすりをかける	몹시 고민하다
	胸のきり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어두운 마음
놀람	胸に手をおく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비유
증오	胸がわるい	염증을 느끼다
	胸くそがわるい	불쾌감이 치민다
	胸がむかむかする	속이 메스거린다
분노	胸がにえる	창자가 들끓다
	胸にあまる	너무 심하다(참을수가 없다)
	胸にすえかねる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괴로움	胸のけむり	애타는 마음

III 유형 : 韓国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韓国語	備考
기쁨	가슴이 떨리다	期待などで胸がどきどきする
	가슴을 적시다	感動させる
	가슴에 파고 들다	感動をおこす
슬픔	가슴이 몽글하다	感激する
	가슴에 괴명이 들다	恨みがある
	가슴에 멧히다	怒り、悲しみなどが心に強く残る
	가슴을 도려내다	心を痛めさせる
	가슴이 막히다	心が痛む
	가슴이 터지다	悲しくて心が重苦しい
	가슴을 저미게 하다	心を痛めさせる
두려움	가슴이 떨리다	不安感を感じる
놀람	가슴이 무너지다	何かを知らされたり、聞かされたりしてはっと驚く
	가슴이 절렁하다	衝撃をうけてびっくりする
괴로움	가슴을 치다	後悔する
	가슴에 못을 박다	精神的に痛烈に苦痛をあたえる
	가슴을 쥐어 뜯다	切なく思う
	가슴이 답답하다	心が曇って苦しい

〈별표12〉 腹/배

I 유형 : 日・韓 慣用語句의 情緒表現의 意味가 同一하거나 비슷한 表現

区分	日本語	韓国語
흥미	腹を肥やす	배를 채우다(배를 불리다)

Ⅱ 유형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日本語	備考
기쁨	腹をかかえる	배꼽을 잡다
	腹の皮をよる	배꼽을 쥐다
	腹がいえる	노여움이나 원한이 풀려 속이 후련하다
	腹がされる	“
	腹の皮がよじれる	“
	腹の筋をよる	“
	腹のわたが切れる	“
	腹をよじる	몹시 웃다
슬픔	腹をたつ	몹시 슬퍼하다
분노	腹がたつ	화가 나다
	腹にすえかねる	노여움을 참고 있을 수가 없다
	腹の虫が承知しない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腹をたてる	화를 내다
	腹の虫がおさまらない	울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다
증오	腹がふくれる	할말을 못해 기분이 언짢다
	腹の虫の居所がわるい	저기압이다

Ⅲ 유형 :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韓國語	備考
분노	배가 뒤집히다	腹が引っくり返るほど腹がたつ
증오	배가 뒤틀리다	腹がねじれるほど憎らしい
기타	배가 아프다	相手によいことができて嫉妬する
	배를 앓다	相手によいことができて嫉妬する

〈별표13〉 肝/간 · 담

Ⅰ 유형 : 日・韓 慣用語句의 情緒表現의 意味가 同一하거나 비슷한 表現

区分	日本語	韓國語
슬픔	肝をいる	간을 태우다
두려움	肝をひやす	간담이 서늘하다
놀람	肝をつぶす	간이 오그라들다(간이 쭈알만해지다)
	肝がつぶれる	간이 오그라들다(간이 쭈알만해지다)
	肝をけす	간이 떨어지다

Ⅱ 유형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日本語	備考
기쁨	肝にしむ	감명깊다
슬픔	肝をくだく	애타우다
놀람	肝にこたえる	크게 자극을 받아 따끔하게 느껴지다
분노	肝に興もさめる	어이가 없어 정나미가 떨어지다
괴로움	肝をなむ	몹시 고생을 하다
기타	肝をおとす	낙담하다

Ⅲ 유형 :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韓國語	備考
기쁨	간이 녹다	氣にたって喜ぶ
슬픔	간을 졸이다	氣をもむ
	간이 떨리다	氣をもむ
두려움	간이 벌름거리다	氣もが開いたりすぼんだりするようにこわい
놀람	간이 덜렁하다	肝が落ちそうに驚く
	간이 내려앉다	肝がおちるほど驚く
분노	간에 불붙다	腹がたつ
	간이 마르다	氣がくさる

〈별표14〉 腰/허리

I 유형 : 日・韓 慣用語句의 情緒表現의 意味가 同一하거나 비슷한 表現

区分	日本語	韓國語
기쁨	腰をよる	허리가 꺾어지다
기타	腰がか가める	허리를 굽히다(검손한 태도를 취하다)

Ⅱ 유형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日本語	備考
기쁨	腰がたかい	고자세이다
놀람	腰がぬける	놀라 자빠지다
	腰をぬかす	놀라 자빠지다
	浮腰になる	엉거주춤하다
기타	腰がひくい	태도가 겸손하다

Ⅲ유형 :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韓國語	備考
기쁨	허리를 잡다	爆笑する
피로움	허리가 부러지다	骨をおる
	허리가 휘다	骨をおる
	허리가 굽어지다	苦勞してやつれる

〈별표15〉 臍/배꼽

I 유형 : 日・韓 慣用語句의 情緒表現의 意味가 同一하거나 비슷한 表現

区分	日本語	韓國語
기쁨	臍をくねる	배꼽 빠지다
	臍がさいこくする	배꼽 빠지다
	臍がやどかえする	배꼽 빠지다
	臍がよれる	배꼽 빠지다
	臍で茶をわかす	배꼽을 빼다

II 유형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日本語	備考
분노	臍をまげる	몹시 불쾌한 표정을 짓다

Ⅲ유형 :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韓國語	備考
기쁨	배꼽을 잡다	腹をかかえる
	배꼽을 쥐다	腹の皮をよる

〈별표16〉 腸/애, 뱀 · 애간장

I 유형 : 日・韓 慣用語句의 情緒表現의 意味가 同一하거나 비슷한 表現

区分	日本語	韓国語
슬픔	はらわたをたつ	애간장이 끊어지다
	はらわたがちぎれる	애간장이 녹다
분노	腸かたにえくりかえる	뱀이 뒤틀리다
	はらわたかたにえくりかえる	뱀이 뒤틀리다

II 유형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日本語	備考
기쁨	はらわたをさる	몹시 우스움

III 유형 : 韓国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韓国語	備考
슬픔	애가 타다	切なかったり、苛立たい気持ち
	애가 터지다	切なかったり、苛立たい気持ち
	애를 태우다	苛立たい気持ち
	애가 끓다	心をこがす(いらいらする)
	애가 달다	気が揉める
	애가 마르다	気がくさる
	애를 쓰다	困りきる
	애를 먹다	困りきる
분노	뱀이 나다	腹がたつ
	뱀을 부리다	腹をたてる
	뱀이 꼴리다	気障だ
	뱀이 곤두서다	気にさわる
괴로움	애간장을 저미다	激しい苦痛を与えられる

〈별표17〉 肩/어깨

I 유형 : 日・韓 慣用語句의 情緒表現의 意味가 同一하거나 비슷한 表現

区分	日本語	韓国語
기쁨	肩がかかる	어깨가 가벼워지다
	肩がやすまる	어깨가 가볍다
	肩の荷がおろる	어깨가 가벼워지다
	肩で風をきる	어깨마음이 나다
	肩をそびやかす	어깨를 으쓱거리다
두려움	肩をはる	어깨를 펴다
	肩をすぼめる	어깨를 움츠리다
	肩をつぼめる	어깨를 움츠리다
분노	肩をすくめる	어깨를 움츠리다
부끄러움	肩身が狭い	어깨가 움츠려들다
피로움	肩で息をする	어깨로 숨을 쉬다
기타	肩で笑う	어깨를 흔들며 웃다
	肩をおとす	어깨를 늘어뜨리다

II 유형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日本語	備考
기쁨	肩をいからす	뽐내다
	肩をぬく	부담, 책임을 면하여 편하게 되다
	肩肘をはる	뽐내다
	肩ひじをいからせる	뽐내다
	肩身がひろい	자랑스럽다
흥미	肩をいれる	본격적으로 편을 들다(옹원하다)

III 유형 : 韓国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韓国語	備考
기쁨	어깨춤을 추다	踊りたくはどうれしい
슬픔	어깨가 무겁다	心配がある
기타	어깨가 처지다	失望する

〈별표18〉 足/발

I 유형 : 日・韓 慣用語句의 情緒表現의 意味가 同一하거나 비슷한 表現

区分	日本語	韓国語
슬픔	足どりが重い	발길이 무겁다
	足もとに火がつく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피로움	足をうばわれる	발이 묶이다

Ⅱ 유형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日本語	備考
기쁨	足が地につかない	좋아서 어쩔줄을 모르다
	足が地につく	안정되다
슬픔	足があがる	의지할 데가 없어지다
	足場を失なう	의지할 발판을 잃다
두려움	足がすくむ	오금을 못퍼다
놀람	足をそらに	허겁지겁해서
기타	足の裏をかく	멀시하다

Ⅲ 유형 : 韓国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韓国語	備考
기쁨	발길이 가볍다	負担や気にかかることがなくなって胸がはれる
	발등의 불을 끄다	悩みを解決する
	발뻘고 자다	困難などから切り抜けて楽になる
슬픔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名残のためは離れることができない
부끄러움	발이 저리다	疚しくなくない
괴로움	발버둥을 치다	苦勞する
	발을 구르다	苦勞する
	발목이 묶이다	困難などを切り抜けることができない
	발목을 잡히다	困難などを切り抜け羽が切れない
기타	말로차다	ぞんざいに扱う
	발을 돌리다	顔をそむける

〈별표19〉 手/손

I 유형 : 日・韓 慣用語句의 情緒表現의 意味가 同一하거나 비슷한 表現

区分	日本語	韓国語
기쁨	手をうつ	손뼉을 치다
슬픔	手に汗をにぎる	손에 땀이 나다(손에 땀을 쥐다)

Ⅱ 유형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日本語	備考
기쁨	手放してよろこぶ	뒹어놓고 기뻐하다
	手のまい足のふむ所をしらない	너무 좋아 어쩔줄 모르다
슬픔	手がつかない	손을 쓸수 없다
놀람	手に持ったものを落すよう	손에 든 물건을 떨어뜨릴정도로 놀라다
괴로움	手をやく	애먹다
	手におえない	어쩔할 도리가 없다

Ⅲ 유형 :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韓國語	備考
기쁨	손이 맞다	考えや動作が通じ合う
분노	손을 짓다	拒否する
부끄러움	손이 뜨겁다	恥ずかしい
	손이 부끄럽다	恥ずかしい
흥미	손에 붙다	手放しできないほど興味がある

〈별표20〉 尻/엉덩이

I 유형 : 日・韓 慣用語句의 情緒表現의 意味가 同一하거나 비슷한 表現

区分	日本語	韓國語
기타	尻にしく	엉덩이 밑에 깔다(깔아 뭉개다)

Ⅱ 유형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日本語	備考
슬픔	尻に火がつく	매우 다급해지다
분노	尻をもちこむ	상대방을 욕박지르다
기타	尻から焼けてくるよう	몹시 당황하다
	尻をくられ	남을 업신여겨서 하는말

Ⅲ 유형 :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韓國語	備考
-	-	-

〈별표21〉 身/몸

Ⅰ 유형 : 日・韓 慣用語句의 情緒表現의 意味가 同一하거나 비슷한 表現

区分	日本語	韓国語
기쁨	身になる	피와 살이 되다
두려움	身の毛がよだつ	몸에 소름이 돋다
	身の毛をつめる	몸에 소름이 돋다
	身をちぢめる	몸을 움츠리다
	身震いする	몸서리가 나다
놀람	身がふるえあがる	몸이 떨리다
부끄러움	身の置き場がない	몸둘바를 모르다
괴로움	身をくだく	몸이 으스러지다
	身がほそる	몸이 마르다

Ⅱ 유형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日本語	備考
기쁨	身にしみる	깊이 감동되다
슬픔	身をくだく	몹시 근심하다
	身をやく	속을 태우다
분노	身がもえる	몸에서 불덩이가 치밀다
괴로움	身を切るよう	살을 에는 듯 하다
	身をけずる	살을 깎다
	身をもがく	발버둥치다
	身にこたえる	심하게 느껴지다
흥미	身がはいる	열중하다
	身をやつす	정신을 팔다

Ⅲ 유형 : 韓国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韓国語	備考
슬픔	몸이 달다	気の毒がる
분노	몸을 꼬다	苛立たしくなる
괴로움	몸살이 나다	苦痛だ
기타	몸이 굳다	緊張する

〈별표22〉 血/피

I 유형 : 日・韓 慣用語句의 情緒表現의 意味가 同一하거나 비슷한 表現

区分	日本語	韓国語
기쁨	血となり肉となる	피와 살이 되다
	血がわく	피가 용솟음치다
	血がもえる	피가 끓다
	血がたぎる	피가 용솟음치다
슬픔	血になく	피눈물을 흘리다
	血の雨をふらす	피투성이를 만들다
놀람	血の気がひく	핏기가 가시다
	血の気がうせる	핏기가 가시다
	血の色をうしなう	핏기를 잃다
분노	血が逆流する	피가 거꾸로 솟다
	血も涙もない人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증오	血を沸き立たせる	피가 끓어오르게 하다
피로움	血のでるよう	피나는 고생을 하다
	血をはく	피를 토하다
	涙に血が混じる	피눈물을 흘리다

II 유형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日本語	備考
분노	血がのぼる	울컥하는 기분이 되다
	血相をかえる	안색이 변하다
흥미	血道をあげる	여자따위에 열중하다

III 유형 : 韓国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韓国語	備考
슬픔	피를 말리다	焦らせる
	피에 울다	あわれげに泣く
분노	핏대를 올리다(세우다, 돌구다)	腹をたてる
피로움	피가 마르다	悩ましい
	피땀을 싸다	たいへん苦勞する
흥미	핏말이 서다	何かに強く執着する

〈별표23〉 骨/뼈

Ⅰ 유형 : 日・韓 慣用語句의 情緒表現의 意味가 同一하거나 비슷한 表現

区分	日本語	韓国語
괴로움	骨をおる	뼈 빠지다(뼈가 휘다)
	骨身をけずる	뼈를 깎다
	骨をくだく	뼈를 갈다

Ⅱ 유형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日本語	備考
기쁨	骨にしみる	깊이 감동하다
	骨にてっする	깊이 감동하다
	骨身にこたえる	깊이 감동하다
	骨身にしみる	깊이 감동하다

Ⅲ 유형 : 韓国語에만 있는 慣用語句 情緒表現

区分	韓国語	備考
기쁨	뼈 다귀를 녹이다	夢心地にさせる
중오	뼈 골에 사무치다	恨みなどが忘れられずに深くしみる
괴로움	뼈를 굵어내다	苦痛が激しい
	뼈 아프다	苦痛だ

Aba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Japanese Idiomatic Phrases

by Young-Jin Kang

The Japanes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Japanese more accessible to students who have had no concept of idioms in Japanese or of Japanese itself.

In the paper, the concept of idioms in both Korean and Japanese was studied to help better understand idioms in studying Japanes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pective emotions of the idioms connected with the part of the body and the idioms connected with body used by respective emotional expressions were also studied.

Generally, the similarity between Korean and Japanese has been marked easily in that they have the same word order, are situated on the similar area and belong to the same Chinese classics culture. But there are a little differences in tradition and the ways of developing ideas and not a little ones in the ways of expression and vocabulary.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of the part of the body and the expression of emotion obtained by this study, We came to know the pattern as follows.

The part of body which is found very common in Japanese idioms and Korean ones is as follows. In Japanese, the part, eye is ranked the first. And the next is chest, face, nose, shoulder/body, blood, abdomen/head, ear mouth, neck, liver, eyebrow, hand, tooth/waist/bone, navel, intestine, and buttock(hip) in order.

Compared with Japanese, the part eye is also first ranked in Korean, But the other parts are rather different like this. There are chest, face, head, mouth/blood, nose, liver/intestine, ear/neck, foot, shoulder, liver/body, bone, hand, waist, abdomen, navel, tooth and buttock(hip) in order. We can rarely find the idioms with eyebrow and chin in Korean..

In addition, the following are emotion expressions we can find in Japanese idioms : delight, anger, interest, sorrow, surprise, annoyance, ashamed, hatred, and dread. In Korean, the following are common emotion expressions : delight, sorrow, annoyance, anger, interest, shame, surprise, hatred, and dread.

Understanding the idioms connected with the part of the body between Korean and Japanese as well as connected the person's expression , as you have seen, will help you make yourselves deeply understood in language.

The next subject on the study of idioms will be covered further whole emotion expressions not only abstract concept but mental one.